

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포상금이 탐이 나서 무고한 국민을 저들의 입맛에 맞추어 거짓조서와 공소장을 고문으로 조작하고 법원판사는 재판장에서 호소하는 양심수의 고문사실을 모르쇠로 유죄 선고하는 악순환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다. 고문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후유증은 치유되지 않아 평생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안기부가 꾸민 각본에 어떤 사람이 지목되면 그 집안과 친척은 영문도 모르게 잡혀가서 가진 협박과 고문 끝에 허위 자백한다. 사형, 무기 등 장기 복역한 이들이 그 공포스럽고 잔인무도한 수사관들의 행동을 증언할 때 마다 목이매어 오열한다. 늙으신 어머니를 옆방에 두고 고문하는 수법은 천인공로할 일이다. 이렇듯 X파일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업적은 과히 악의 소굴로 언명하여도 손색이 없다.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 인사들에게 명복을 빌 뿐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일뿐이다

한편으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인권단체 노력을 말하고 싶다. 2001년부터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정보상임위에 상정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인권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할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여겨지는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철수라든지, 남북 통일운동에 총 매진하는 등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편이 낫다고 본 것이다. 민주화 운동세력을 탄압해 온 정권유지의 하수인들은 물러나고 순수하게 정보수집 기관으로 일하는 곳이 되라는 것이다. 대책위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신기남 정보위원장은 미래의 국정원은 밝고 투명한 국정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반세기 동안 강력하고 포악한 조직의 성격을 고쳐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변할 수 있을까? 남북은 아직도 분단되어 있고 국가보안법도 살아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나라의 안보를 빌미로 수많은 애국자를 고문하고 조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발의에 앞장 선 조성태의원의 논리는 오랫동안 매카시 논리와 극우논리에 굳어 버린 병자와 같은 인상을 주었고 테러 위험이 세계 3번째인 대한민국을 걱정하느라 하루 빨리 국정원의 권력을 부여하여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역설한다. 민주가족 여러분, 힘없는 우리 국민이 뚝뚝 뭉쳐서 악법 제정을 막아봅시다. 한사람의 힘은 약해도 여럿이 합하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보안수사대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20) 581회 목요일집회를 마치고

2005년 8월 67호

보람 있었던 날 그러나 아직도 남은 양심수들

목요일집회가 있던 8월 18일은 근간에 어머니들이 한 달 반을 내내 양심수 석방을 위해 뛰어다녔던 만큼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던 날이다. 이번 8·15사면에 양심수 석방은 아주 작은 숫자(13명)밖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양심수, 농민양심수 조현수씨 등이 나와서 그나마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을까. 조현수씨는 건강악화로 하루먼저 귀가하였다. 한총련 학생들로 이덕용, 민기채, 윤영일, 이동진, 박대성, 이종남 학생들이 석방되었고 강성철, 김성봉, 김석영, 노동자 양심수들이 해당되었다. 철거민 운동을 하던 고천만, 인태순씨가 나와서 기뻐고 무엇보다도 전 범민련사무처장 민경우씨가 나와서 기뻐다. 집회 후 식당에서 민경우, 민기채, 윤영일씨 등이 준비해 온 떡을 어머니들과 함께 나누었다. 오랜 세월 감옥에서 나오면 떡을 함께 먹는 습관이 민가협에 생겼던 것이다. 민주노동당 전 고문인 강태운 선생님이 감형만 되고 석방되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사모님을 위로하고 석방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다짐하였다. 석방운동도 가지가지, 경원대 학생들은 한 달 동안 하루 서너 시간 걸리는 청와대 주변을 뛰어 걸었으며 경찰제지에도 도보순례를 멈추지 않았다. 이날 까맣게 그을린 도보순례 학생도 자리를 함께 했다. 광주에서 온 영일씨와 기채에게 어머니들은 노잣돈을 조금 손에 쥐어주고 헤어졌다. 강성철씨는 아주 곧은 사람으로 영등포 교도소에서 사리에 어긋나는 교도관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단식으로 싸워, 못매와 감금으로 고생하면서 고발정신으로 교도관의 폭행사실을 세상에 알린 분이다. 불굴의 양심이 소중하기만 하다. 이렇듯 우리 양심수는 아무 죄 없이 감옥에 잡혀가서 고생하고 나왔다.

우리 어머니들이 미·기결 선발석방하지 말고 전원 석방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70여명의 양심수는 아직도 풀려나지 않고 있다. 노동자, 철거민 등 많은 이들이 재판중이거나 조사 중이다. 하루빨리 직장과 가정, 학교로 돌아가기를 소원한다. 노무현 정부는 그 많은 사면대상자 속에서 유난히도 파업과 시위로 감옥에 간 양심수들에게는 인색한가! 이 땅의 양심수란 말이 없어질 때까지 민가협 어머니들은 투쟁할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젊은이들(10명)도 좌시하면 안 된다. 동족끼리 총 뿌리 대지 않고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며 차라리 감옥행을 택한 평화를 사랑하는 양심수들이다. 이들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악순환, 이제는 그만둬야

엄혹한 독재정권시절에는 양심수는 1,600명을 넘었고 감옥마다 만원으로 검경 교도관들이 눈에 핏발 세워 갖은 나쁜 짓을 다하고 다녔다. '처우 개선하라'고 감옥에서 외치면 수감에다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하고 '면회사절, 운동세면불가'하며 짐승같이 다루었다. 저항하는 족족 폭행과 금치(벌칙), 불리한 여건을 주어 고통을 배가시켰다. 밖의 가족들도 그때 함께 단식농성으로 "내 자식 다 죽는다. 석방시켜라" 하며 발버둥치며 처절히 대항하면 경교대와 전경들이 합동으로 밀어붙여 진압한다. 피 흘리고 찢어지는 부상자가 속출하고 기절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악순환은 끝없이 되풀이 되었다. 민가협 20년 동안 행형법도 고쳐져서 조금 나아졌으나 전두환 노태우 때는 몽당연필하나 소유할 수 없었고 텔레비전 시청은 엄두도내지 못하였다. 말끝마다 '빨갱이 자식', '빨갱이 어미는 똑같다'며 이죽거렸고 고문조작은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다. 오죽했으면 민가협에서 현상금 걸고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수배했을까. 금년 8월에 만기로 나온다는 이근안 고문기술자는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저승에 가서 전기가게를 열던지, 지구 밖으로 이민을 가던지 하여 이 땅을 떠나야 할 위인이다. 자기들 구미에 맞추어 조서를 꾸며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낸公安수사관들의 죄목을 몇 년 옥살이로는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덧씌워서 양심수를 만들어내는 권력의 하수인과 책임자들은 그 죄가 너무 크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 보안사, 기무사, 경찰의 대공분실, 보안과의 고문조작으로 인한 죄인 만들기는 그런 공안기관을 해체해야만 그 음습한 만행을 단절시킬 수 있다. 요새 국정원이 X파일로 시끄럽다. 검찰이 수색하여 도감청 기계를 압수하였다고 한다. 국정원의 그 많은 국고 지출은 국민에게 다 비밀로 하고 사건이 터졌다하면 그 엄청난 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공안기구는 없애버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기관으로 탈바꿈하여 거듭나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살아있고 이자들이 지금은 기죽어있지만 언제 또 득세하여公安노름을 할지 모르겠으니 말이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석방운동의 지나간 상념은 끝이 없다

8·15사면을 기해서 자진 출두한 한총련 정치수배자 우대식군과 전위봉군, 두 사람을 구속·송치하여 버렸다. 비열의 극치인 검찰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 민가협 어머니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때가 많다. 대식은 긴 단식생활과 오랜 수배생활로 병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 빨리 정치수배해제하고 이적규정 철회하여 수배학생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라.

민가협 20년 석방운동에 지나간 상념은 끝이 없다. 엄마들은 소원하고 소원한다.

나이든 어머니들이 거리를 해매지 않고, 해맑은 웃음으로 나라와 겨레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굳건히 부지런히 일하고 모두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죄 없이 고생하는 양심수, 수배자를 모두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21) 8·15 사면, 양심수 전원 석방하라!
2005년 7월 66호

양심수 석방, 외면하지 마라

민가협은 20년 동안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해왔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7월 초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올해 8·15 광복절 경축(?) 기념일에 단행한다고 한다. 그 폭이 크며 교통사고, 생계형사고, 권력형 비리, 정치인 선거법 비리에서 공금유용·횡령 범죄까지 다 사면하여 규모가 600만 명이 넘으리라 한다. 그러나 거리에서, 현장에서 나의 살 권리를 절규하고 나도 사람임을 외친 양심수 석방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며칠 전 TV에서 노동운동 관계 1,200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여 귀가 번쩍뜨였다.

민가협에서 만드는 양심수 현황조사는 다른 곳에서 좀처럼 얻기 어려운 재료로써 꾸준한 노력으로서 정보를 모아, 양심수 현황을 세상에 알려준다. 요사이 어머니들은 이 양심수 현황과 함께 석방에 필요한 자료들을 들고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설득한다.

가장 최근의 양심수 사면은 03년, 대통령 취임기념사면이었다. 13명의 양심수가 풀려난 이후로 아직 복권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8년형의 하영옥씨가 반을 살고 나왔을 때는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양심수는 늘 사면에서 재외되기 일수였다.

작년 한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 앞 찬 땅바닥에서 세밀까지 싸웠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힘 빠지고 분통이 터졌으나 악법 국가보안법은 빈사상태에서 아직 살아있다.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 등 노동현장과 거리에서 공권력으로 붙잡아 가둬 생긴 양심수들이 많아서 독재정권시절에는 발에 차일정도로 많던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양심수는 현저히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인 강태운 선생, 통일일꾼 민경우씨, 한총련 대의원 등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꼭 석방되어야 한다. 농민운동가 조현수씨도 꼭 석방되어야 한다. 건강악화로 민가협어머니들은 이번에는 꼭 자유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기 바라는 것이다.

돈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마스크하고 휠체어 타고 재판받으러 나오면 의fp '행집행정지'다 '병보석'이다 하여 슬그머니 감옥살이가 끝나지만 정작 몸이 아픈 양심수들은 그런 특권을 주지 않는다.

민가협 20년을 놓고 보니

20년간 활동을 오늘날까지 훑어보면 감옥 안에도 층이 있었고 불공평이 끊이지 않았다. 전직대통령, 그 자식들의 호강이라 할 수 있는 특혜가 아니꼬고, "형평"에 대한 모순을 경험할 뿐이었다. 학생운동하다 잡힌 대학생들은 눈에 가시나 방해꾼으로 미워하며 처음부터 구타와 억지자백, 고문으로 형량도 무겁게 하여 가진 탄압을 받았다. 5공때는 1,600명의 양심수를 감옥이 넘쳐나도록 가두었고, 그 속에서 구호를 외치면 떠든다고 징벌방으로 가두었다. 바깥의 부모들은 애가 타서 같이 굶고 농성하면 전경들의 군홧발에 기절하여 병원으로 실려가고 부상 당하기 일수였다. 1985년 많은 학부모들은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없이 죄없는 아들, 딸 석방운동을 하자고 결의하여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들이 뚝뚝 뭉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온 것이 오늘날 민가협 엄마들의 처음모습이다. 20년을 억울하게 탄압하고 정의로운 청년학생, 민주인사를 옥에 가두는 것을 반대하면서 석방운동을 해 온 것이다.

1995년 8·15사면때는 45년, 42년 옥살이 김선명 선생, 안학섭 선생님이 석방되어 정말 기뻐다. 그 지나간 세월을 비전향양심수로서 버텨낸 신념과 기개가 놀라웠다. 세계에 가장 긴 옥살이를 기록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의 대쪽같은 양심이 너무도 소중한 위대한 승리로 비쳐졌다. 김선명 선생님은 2000년 9월에 이북가서 장가도 가시고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시절 혹독한 전향공작에 살아남은 비전향장기수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다. 2000년도 63명 복으로 가시고 남에도 많이 계시며 자주 얼굴을 뵈올때가 많다. 우리 어머니들은 죄없이 갇혀 있는 분들은 항상 석방하라고 외친다. 그 운동이 쉽지 않지만 자유를 잃고 1평 공간에 갇혀 있는 그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내 하나의 욕심을 버리고 여러 사람의 공익을 대변하고 정의롭게 애국하는 이들을 외면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는 젊은이 1,000여명도 우리 어머니들은 빨리 석방되기 원하는 것이다.

815사면은 양심수 사면으로 부터

노무현 정부는 이번에 정치적 꿈수로 많은 이들을 사면할지라도 제일 먼저 양심수 석방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은 집으로 노동자는 일터로 집 없는 철거민의 대책도 보다 개선하여 같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탄생은 국민의 이런 소망이 투표로써 일구어 낸

결과이기 때문인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개혁과 진보는 점점 후퇴하고 별볼일 없는 정치행태가 지속되면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늘 노력하여 자정 평가 속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나라살림과 겨레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연구 매진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서로 믿고 국민의 아픔과 치유를 찾아내 함께하는 자세가 나라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분단조국이 통일의 한반도로써 60년 비극의 역사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겨레의 가슴에 희망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온 세상에 골고루 퍼질때 삶의 고통과 절망이 불식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8·15 사면은 양심수 전원석방부터 시작하라! 무더운 여름철 민주가족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2) 진실과 거짓 2005년 6월 65호

또 테러방지법을 들먹이는 열린우리당

6월3일, 민가협 엄마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모였다. 우리 일행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법안을 발의·상정하여 국회통과를 꾀한다는 소식에 해당 의원실을 찾아가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4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끈질긴 국정원의 오매불망 집념에 빨려 들어가는 여당의 갈지(之)자 정책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기사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였다. 6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지금까지 보여준 의정활동 같으면 비관적인 예감이 앞선다. 여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 쉽게 욕만 하고 넘어갈 것인가. 한겨레신문에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면서 등장한 신형 정치세력이지만...(중략)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득 양극화로 서민과 중산층이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 ...(중략) 현 통치 위기의 핵심에 '위장된 서민정당'으로 전략한 우리당의 정체성 위기가 자리 잡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고 썼다.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도 뒤죽박죽 정책으로 국정운영이 혼동과 착각으로 헤매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항상 악의적으로 공격·규탄하고 노무현 정권 타도를 일삼는 조중동 같은 신문이 아닌 한겨레가 쓰디쓴 충고를 하니 심각하게 고찰을 하니 할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차려주기 바란다.

한편 우리들이 여당의원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느낀 소감은 이리하다. '아직 완전 결정은 안했다', '할까한다', '골치 아파서 주저하고 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 설명은 안 듣겠다' 등으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에 노력하겠다는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중에서 절대 불용이라며 시원하게 말을 하는 의원은 임종인 의원정도였다. 그러나 우리의 설득을 부인하는 옹고집도 보였다. 국정원은 대테러센타를 운영하여 경찰법무부·국방부를 망라해 옛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휘두르려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이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국정원의 야욕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4년동안이나 폐기되었다, 되살아났다하는 이 악법제정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젊은 활동가들이 애를 썼었다.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힘자라는 대로 어머니들도 함께 투쟁할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악법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금년에 57년이 된다. 아직도 양심수로서 한총련, 민주인사들이 감옥살이 하고 있고 한총련,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한청까지 수배연행구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테러방지법은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차기 대통령은 대학졸업한 자”가 되어야

또 한 얘기를 쓰고자한다. 나는 민가협 활동을 20년 동안 해 오면서 많은 인간상들을 보았다. 대통령부터 정치인, 민주인사, 민가협 관계있는 사람 등 많은 이웃들을 직접, 간접으로 듣고 보면서 세월을 보냈다. 어린이들이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등으로 구별하듯 우리도 투쟁현장에서 좋거나 나쁜 것을 구별을 하는데 안기부, 대공분실, 보안사, 군인,경찰 등과 정당 중에서 한나라당은 나쁜 쪽으로 구별한다. 수구보수 차떼기 정당인 한나라당은 지금 제1당이 됐으나 오로지 여당 탈환 목적을 소원한다. 양심세력을 탄압하고 민주화 운동하는 민주인사, 학생들을 용공좌경으로 몰아 뺄려면 색깔론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며 꾸준히 지지 세력과 부동하여 분단고착의 원흉 노릇을 하며 급변하는 세상에도 유아독존으로 일관하여 왔다.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가 당의 대표로써 국가보안법 사수를 이유로 작년 연말 당의장실을 점거했었다. 그의 대변인 전여옥 또한 악명이 자자하다. 싸움으로 지새우는 정치판에 입을 가버이 눌러서는 안된다. “차기 대통령은 대학졸업한 자”가 되어야 한다던가, 또 “노 대통령이 싫다 하는”등의 발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항의 하면 오히려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이슈화한다고 역정을 낸다니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전 대변인은 평소에도 실 새 없는 몸동작으로 TV에 비치는 모습이 알미울 때가 많았다. 국민의 60%가 대학출신이면 나머지 40%는 물지각하고 무지몽매 하여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건가. 그것이 어쩐다는 것인가. 운 좋게 태어나서 대학공

부하고 여건이 좋아서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꼭 나라의 지도자가 될만한 그릇인 법은 없다. 인간으로 옳은 판단과 깨달음이 인격으로 배양되고 도덕관이 철저하여 거래와 나라 살림을 잘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여긴다. 높은 학력으로 우쭐대고 경박한 자만심으로 꼭 찬 이쁜 인물이야 말로 위험한 존재이며 해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오히려 순박하고 선량한 못 배운 사람보다 그 질이 월등하게 악랄 할 때가 많다. 이런 편견을 가진 자가 기자회견 끝에 국회의원을 하다니 앞날이 염려스럽다. 대오 각성하여 대학 타령하기 전 바른 사람이 되기 바란다. 건국 이래 이 나라 대통령들이 한 짓들은 다 대학 못 나와서 한 짓들인가? 이 나라 국민은 사리분별하고 옳은 도덕관을 가지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미래의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다. “차기대통령은 대학졸업한 자”가 라는 발언은 참으로 한나라당 인간 같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대 거만한자여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태어나라.’ ‘한나라당 정치인들아, 옳은 정치를 하려면 먼저 자기수양부터 하라.’
민주가족여러분! 615선언 5주년에는 많은 남북의 교류가 있을 것이고 반갑게 만나서 의논하여 힘을 합해서 통일을 앞당깁시다.

하고 싶은 맹세

1.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양심을 품고 허위·날조하여 선량한 사람을 중상 모략하지 않습니다.
1.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며 몸담고 있는 곳에서 헌신노력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양심껏 일합니다.

23) 우리는 왜 양심수 석방운동을 하는가 2005년 5월 64호

곧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이 온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갇혀있는 양심수 전원 석방은 안되더라도 기결 양심수 32명이라도 사면해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해당 문건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청와대, 법무부 검찰 3과보안과, 여당 의장·인권위원장, 민주노동당 등을 방문해 석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당부했다. 그러나 맨 처음 청와대 민정부서에 문의했더니 이번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에 힘 빠지고 분통이 터졌으나 거기에 주저앉을 우리 엄마가 아니지 않는가.

민가협 20년 활동에서 느끼는 감회는 많기도 하지만 차차 인간들의 신경이 무더

저서 양심수란 존재에 무관심이 지나서 불감(不感)으로 망각해버린다는 사실이다. 나 개인의 치욕스런 범죄이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주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아닌 양심과 정의로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요구를 노동운동으로 실천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거리에서 부르짖고 대학생들이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부르짖었다고 해서 체포구금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양심수로 부른다.

지금은 죄없는 젊은이들과 민주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정당 정치인들에게 돈주는 기업인 20명을 사면복권할 때는 아니다. 불법자금을 받는 정치인들도 벌써 몇 번씩이나 사면복권을 들먹거리던 말인가. 노무현 정부는 왜 경제인 정치인 사면을 양심수 사면보다 먼저 단행하는가?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부여하고 위임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상을 돈으로 흐리게 하고 부정이 판치게 하는 이런 자들을 다시 죄짓지 않도록 따끔하게 벌하고 의로운 양심수부터 풀어줘야 한다.

전두환정권 시절 양심수는 1600명이 되고 대부분 대학생 학부모들이 죄없는 아들딸 내놓으라고 매일 떠돌고 대들었다. 거리시위 조직사건 등 끊임없이 공안 검경들이 고문조작하여 양심수를 양산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잡힌 숫자가 더 많고 폭력 집시법 위반은 오히려 드문 편이었다. 그렇다고 검경만 죄되고 법원의 죄가 가벼울 수는 없다. 경찰 조서를 공안 검찰 공소장으로 만들어 내면 법원은 그대로 베껴쓰고 유죄실형으로 판결하여 옥살이 시켰다. 양심수 가정들은 모두 근심과 눈물로 지새우고 절망으로 병이 나고 하던 사업도 안되고 연좌제로 부모형제까지 불뚱이 튀기 마련이었다. 빨갱이 아들을 억지로 경찰서로 끌고 간 아버지는 고민하다 급사하고 안기부에서 얻은 심한 고문후유증으로 정신병으로 신음하고 석방되어도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버렸다. 6개월만 감옥에 있어도 치아는 절단나고 위장병 변비는 평생 지병이 되어 버린다. 얼마 전 철거민 조합 위원장 부인도 정신이 혼미하다는 얘기에 마음이 아프다. 이혼한 가정은 수두룩하며 독버섯같은 이 후유증은 본인과 가족을 잠식한다. 오랜 세월 지나서 국회의원 법조인 저명인사가 되어 소위 관찮게 풀리는 인생도 있지만 내 귀한 양심과 열정으로 동지를 사랑하고 조직을 아껴서 공의롭게 투쟁하다 옥살이한 경험은 자기인생에 잊어버리지도 물어버리지도 못할 무거운 경력이 분명하다. 땅을 딛고 하늘을 쳐다보고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디든지 오고갈 수 있는 자유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할 사람이면 다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번에 농민 양심수 조현수씨 석방을 특히 강조했다. 고관절 환자인데다 교통사고로 양다리가 불편하고 복역 중에 2번이나 고관절 탈골로 수술을 받고 아토피병으로 고생하는 조현수씨를 빨리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75세의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의 석방, 통일운동가 민 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석방을 요구했고 한총련 대학생들의 곱징역살이(집행유예 + 실형)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석방을 당부했다. 한 사람

한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은 지면관계로 다 쓸 수 없지만 이땅 민초들이 자기 한몸 아끼지 않고 기꺼이 투쟁의 장에 합류하여 갇힌 몸이 된 양심수를 민가협 엄마들은 사랑하고 존경한다. 어머니 들 8.15 광복절 사면도 있잖아요? 희망을 걸고 계속 석방운동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인 사면복권 할 생각하지 말고 양심수부터 석방하라! 이땅의 민주화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갇히고 희생된 덕분에 오늘날 이 정도나마 세상이 달라졌고 오랜 군부정권이 무너지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는가. 양심수들은 자기 한 몸의 영달과 평안을 버리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참된 민주주의와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대신 옥살이를 하고 있지 않는가. 당리당락과 정치적 술수로 기업인 정치인을 풀어주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조치는 국민의 불신만 쌓을 것이 아닌가. 양심수 사면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직장파괴와 학교와 가정으로 되돌려야 한다.

민주가족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어머니들이 서울대학교 봄 대동제에서 장터를 열어 이것저것 맛있는 것 만들어서 열심히 장사할 것입니다. "구수한 순대 큼직한 통일파전 쫄깃쫄깃 매콤한 떡볶이, 신선한 제육볶음, 따끈한 오뎅, 막걸리 곁들어서 많이 잡수세요" 이 말은 내가 17년간 선전하는 안내말로서 학생들 용돈을 겨냥하여 인정사정없이 유혹하는 말 솜씨입니다.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죄 없이 감혀있는 양심수 석방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기금에 쓰입니다. 오늘은 별식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십시오" 고달픈 민가협 어머니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해도 열심히 장터를 꾸려갑시다. 건강하십시오.

24)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은 안된다

2005년 4월 63호

봄날의 두 가지 소식

봄빛이 완연하다. 앞마당 목련나무 검은 봉우리가 다 터져 하얀 빛깔의 꽃봉우리가 다투어 피려고 준비한다. 이 집에서 스물두해째 보는 목련은 올해도 앞집 지붕을 넘어 구름처럼 피어나서 골목을 장식하리라.

4월 5일, 파주 보광사 산자락 통일열사 묘지에 류낙진 선생님의 유골항아리를 많은 동지와 조객들의 애도 속에 안치했다. "존경하는 류낙진 선생님 부디 고이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파란만던 과업을 위해 30년을 감옥에서

고생하시고 휴유증으로 많은 병(고혈압, 당뇨, 폐질환, 기관지염,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다 평생을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생을 마감하셨다. 좋은 세상을 보고 가서야 하는데 긴 옥살이에 지친 깡마른 선생님의 인자한 모습이 선하다.

식목일의 안타까운 소식은 바람이 불어 꺼지지 않은 산불이 인가와 양양 낙산사까지 다탈고 많은 이재민까지 발생시켰다고 한다. 지난 여름에는 물난리에 고생하던 강원도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보니 뭐라 위로할 말이 없다.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은 절대 안된다. 완전 폐지하라

4월 2일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문희상 의원이 선출되었다. 나는 이번 당의장은 합리적인 협상꾼, 원숙하고 노련한 정치꾼이 아닌 정직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뽑히기를 바랐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문 의장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을 여야가 합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어 “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사실이 없고 대체입법에 찬성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나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는 존중되어야 하며 대체입법을 여야가 합의한다면 내 개인적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참, 기가 막힌다. 문 의원은 과거 양김씨 정권과 노대통령 취임초기 비서실장으로 산전수전 다 겪고 바람부는대로 매끄럽게 살아온 정치인이다. 이런 말을 지렛대삼아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따르지 않고 한나라당과 협상하려는 물지각한 국회의원은 대체 어떤 인물인가? 눈 여겨 보련다.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에는 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열기가 높았지만 지금은 열망은 날아가 버리고 인기없는 현안이 되버려 그런다는 것이다. 꽤 씩씩한 것들!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을 민가협 어머니는 절대 반대한다. 만일 대체입법에 합의를 하려는 국회의원이라면 눈 똑바로 뜨고 새겨두고 규탄하고 비난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60여년동안 우리 사회의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애국인사, 청년학생을 야금야금 좀 먹어오던 악법이다. 대체입법은 안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간절한 개혁 열망으로 이룬 정당이 아닌가. 가뜩이나 작년 연말 국회에서의 행동으로 국민의 실망을 산 것일진데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두고 대체입법쪽으로 합의를 한다면 끝내는 추락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구악에 젖은 차떼기 당으로 연말 국회에서 보안법폐지 반대로 온갖 방해와 지연작전을 일삼던 정당인데 스리슬쩍 합의하면 똑같은 부류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안기부, 경찰 대공분실에서 고문에 시달려 휴유증을 앓고 있는 민주인사가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는 악삭빠른 이런 정치음모는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누누히 말했지만, 완전 폐지해야 되어야 한다.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법학자, 법률가들이 천명했다. 우리 어머니들은 곧 당의장을 만나서 엄중히 항의

하려고 한다.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인권지기가 되어야

또 하나 얘기하고픈 일이 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의 변형, 편법적인 테러정보 종합센터의 신설이다. 2001년부터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국회통과를 위해 갖은 애를 쓰다가 시민사회단체와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내분을 시도) 편법적으로 훈령 47조(국가대테러지침)라는 것을 네 차례나 바꾸었고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고 모호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이 법이 시민사회의 반대로 더디게 되자 훈령을 고쳐 테러정보통합센터 운영함으로 야욕을 이루는 걸음걸이를 시작하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나는 대테러 처장이라고 하는 국정원(20년 근무)인물을 5년만에 다시 만나 놀랐다. 얼마나 집념어리게 파고 일했는지 그동안 팍삭 늙어 있었다. 하기사 그 넓은 터에 그렇게 큰 집을 지어 놓고 옛날 같이 고문으로 조작간첩이나 만드는 등 그 위세를 갖추지 못하니 괴로울 것이다. 여전히 국복을 타 먹고 옛날의 위세등등한 세력을 되찾으려고 대테러센터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관이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대테러센터를 민가협 어머니는 단연코 반대한다. 국정원은 대통령 훈령 47호를 개정해 테러정보통합센터를 국방부, 행자부, 소방재청 등 각 부처등과 24시간체제로 지위보강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훈령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서를 들고 만나본 국정원 직원은 공개할 수 없는 비밀 훈령이 있다며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보니 훈령을 고쳐 국가대테러 대책회의를 두고 그 아래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매달 법무부를 포함한 주요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국정원장이 모여 회의를 한다고 한다. 훈령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문외한인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상임위원회나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보더라도 거기에 모인 장관이나 청와대 사람들은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정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곧 국정원이 '테러위협'을 빌미 삼아 정부 각 부처들을 지휘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국정원은 '테러'를 핑계삼아 정부 각 부처를 자기들 입맛대로 지휘하고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조직과 권한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때에 악행으로 봐서 그들이 입으로 아무리 민주주의, 인권을 원다하더라도 '테러'위협 운운하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몇 번이고 그들의 전죄를 역설하였다. '테러'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법을 만들어 권력을 휘두르려는 국정원의 야욕은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해 지나친 권력을 박탈하고 축소해 정보수집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안팎의 비밀정보수집에다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국정원의 막대한 권한을 줄여서 민주사회에 걸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게끔 국정원을 단단히 개혁해야 할 것이다.

4월 1일, 열린우리당의 인권특별위원회 출범에 나는 이렇게 위원장에게 당부하였다.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억울하게 눈물흘리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어 헌신적으로 일하는 인권지기가 되어 달라."

민주가족 여러분 환절기에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민가협 어머니들, 이 땅의 인권사각 지대에 있는 갇혀 있는 분들을 위해 바쁘게 쫓아 다닙시다. 4월 국회를 지켜봅시다.

사진 : 3월 10일 스페인에서 열린 "민주주의, 테러, 안전에 관한 국제정상회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0일 "일부국이 채택하고 있는 테러대책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데 유엔을 포함한 국제 인권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 2월 有感(유감)
2005년 3월 62호

왜 국회의사일정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는가

새해 벽두부터 설날을 거쳐 내내 덕담과 인사를 하고 대보름을 지내고서야 틀림 없이 한 살을 더 먹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하는 말들이 싫든 좋든 마음 가득히 박혀버렸다.

2월이 다 가도록 수상쩍더니, 지난 연말 여야 합의하에 국가보안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또 잠잠해져 버렸다. 2월 임시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회하였다. 이들 국회의원들의 거짓말 하기는 식은 죽 먹듯이 익숙한가. 믿고 있는 내 꼴이 한심스럽다. 다시 한번 지난 겨울 내내 한나라당의 방해 공작과 열린우리당의 무능한 처사, 김원기 국회의장의 고의적인 지연전술이 떠올라 분통이 터진다. 제1당인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까지 모으고도 한나라당의 눈치나 보고 음지에서 야합이나 하려하는 것이 안타깝다. 국민의 심부름꾼인 당신들은 비싼 세비 받아먹고 왜 국회의사일정대로 진척시키지 않는가.

참여정부 2돌을 맞이하여서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25일로 취임 2돌을 맞았다. 탄핵소추 소동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듯하나 공과가 엇갈리는 2년 동안은 어느 때 보다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희망이 컸었다. 이런 국민의 바람은 여의도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식농성으로 이어져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였다. 물론 6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악법의 폐지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군부독재정권이 계속되던 엄혹한 지난 시절 '바른말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 한 죄 밖에 없는 애국자들을 고문·조작하여 죽이고 가두며 국민을 속여왔다. '빨갱이들을 보안법으로 다스려서 오늘날 남한이 안전하게 지내왔는데 왜 이런 좋은 법을 없애라 하느냐'고 폐지 불가를 떠들고 있는 수구꼴통들도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억지논리로 안간힘을 쓰며 건국 이래 반공으로 굳은 머리통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군상으로 일그러졌다. 목요일집회는 탑골공원앞에서 12년째, 주간마다 일어난 인권침해사례와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어제는 술 취한 늙은 위인이 고래 고래 악을 쓴다. '이 빨갱이 년들아. 국가보안법이 왜 생길 줄 아느냐' 하며 집회를 함께하는 경찰의 제어에도 막무가내다. 어머니들도 같이 응수한다. '모르면 집에 처 박혀 있어라.' 아마 이자는 젊은 시절 고문경관이나 공포스런 서북청년대원이거나 첩보살인자 노릇이나 하였을까. 악쓰는 꼴이 추악하고 혐오스럽다. 늘 보는 광경이나 나의 깊은 마음의 상처가 도져서 쑤시는 듯 하다. 이미 지나간 옛것을 그리워하는 이런 자들을 모조리 지구 밖으로 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희망을 주는 광경 들

반면, 감동을 주고 내일의 희망을 안겨주는 광경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곧이어 37명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인권 상황을 전하는 2004년도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보고 대회를 마쳤다.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국회앞 여의도에서 올바른 과거사를 청산을 위한 과거진상규명법 제정을 촉구 농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군가협, 유가협, 의문사 가족을 방문하였다. 차가운 바람 속에 천막하나 없이 버티고 있는 이분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고허원근 아버지, 고최우혁 아버지 등이 고령이신데도 웃음을 잃지 않은 채 푸근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버티고 계셨다. 18년 이상을 끈질기게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속히 좋은 결과 얻기를 빌면서 어머니들은 여의도 공원으로 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청년 실천단을 방문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청년 실천단은 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한달, 31일을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생활을 하며 7시에 일어나 전철역 홍보, 광화문 촛불행진까지 힘든 하루 일정을 보내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나는 정말 마음 든든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인천, 서울, 부산, 울산 등에서 온 활동가들이 제대로 된 난방도 없이 불편한 숙식에 열심히 등대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고맙고 대견스러웠다.

보dana은 세상을 그리며

25일 대통령 취임사면은 옛말이 되었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민가협은 자료를 만들고 방문하여 석방을 촉구하였건만 또 성의 없이 그냥 지나갈 뿐이다.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도 그대로이고 75세 되신 강태운 선생님과 통일운동가 민경우 양심수도 하루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 한총련대의원, 노동자, 철거민 등 감옥살이하는 많은 양심수들 모두 다 석방되어야 한다. 실망과 분노로 뒤숭숭한 이 늙은 엄마도 내일의 보dana은 세상을 그리며 죽기 전에 남북이 통일되어 국민 모두 우리 부부라도 이북 땅, 고향에 가기가 소원이다.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26)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5년 1월 61호

새해부터 공허감에 시달리다

2005년 새해가 밝았으나 여의도 국회앞 단식농성장 찬땅, 칼바람 속에서 묵은해 12월 31일 밤을 보내며 원통하고 허무하게 2달간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하루 1,000여명의 국민농성단이 한겨울추위 속에서 곡기를 끊고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의 염원으로 국회를 향해 갖은 노력과 경중을 울렸건만, 정치한다는 의원들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먼저 폐지하겠다고 호언 장담한 과반수의석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까지 모으고도 내부분열과 무능의 치부만 드러내놓고 말았다. 물론 몇몇 양심있는 의원들의 노력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눈치저 눈치 보고 머뭇거리는 여당의원들의 비굴한 작태로 인해 보안법 폐지는 커녕 개혁법안조차 손도 대보지 않고 새해 2월 임시국회로 넘기고 만 것이다.

20년동안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부르짖은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새해 벽두부터 공허감에 시달려야 했다. 없어질 듯 하던 악법을 없애지 못한 절망감에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했다. 이런저런 곡절 끝에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 당의장 등을 다시 뽑고 정비에 나섰지만 그 물결은 나의 눈에는 그리 탐탁치않게

보인다.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대오각성하여 뼈를 깎는 반성과 실천 없이는 그날이 그날이요, 표밭이나 가꾸면서 바람부는대로 몸을 사리고 쫓대없이 보신하는 의원들이 있는 한 국가보안법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민가협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월 24일, 낮, 여의도에 모여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안을 통과시키라고 경고하고 농성을 다시 시작하였다. 농성장 설치를 경찰이 방해하였으나 우리들의 의지는 결연하였다. 그런데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앞길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와 같은 시기, 국가보안법 사수농성을 벌이던 자들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농성하던 곳으로 옮겨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뽕뽕한 전경차가 담을 쌓고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깃발을 높이 세운 차량이 귀청 따갑게 확성기 노래를 틀어놓고 떠돌고 있었다. '사수! 국가보안법', '빨갱이 이철우의원 사퇴하라', 이 수구꼴통들은 특하면 혈기등등하게 연단무대에 뛰어올라와서 폭력으로 집회를 방해하면서 강패짓을 하던 자들이다. 경찰옹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때가 있다. 꼭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짓거리와 같을 때가 많다. 법사위 회의실을 2주간이나 점거하여 법안상정논의 조차 못하게 하고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방해 공작을 펴 온 수법과 일맥상통한다.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을때 '지둘러'라고 한 김원기 국회의장의 모호한 태도를 나는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전, 전대협동우회 회원들이 통일광장어른들, 유가협과 민가협 어머니들을 초대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된 몇몇 젊은이들이 '부끄럽다', '죄송하다'를 연발하였다. 몇몇의원들의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일이 안됐다는 것이다. 다 썩은 자들이니까 결연한 의지없이 어찌 60년묵은 악의 뿌리 국가보안법을 없앨 수 있으랴. 곧 1월달이 다 지나고 설날이 다가온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역사의 무덤으로 오래전에 버려져야 할 악법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과거사진상 규명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등을 양심을 걸고 일을 해주기 바란다.

인권이 취약한 나라, 국력도 취약

1월 26일 10시, 12기 한총련 의장인 백종호 학생의 첫 재판이 있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려는公安검사의 악마같은 목소리가 예나 지금이나 구태의연하고 지루했다. 그러나 또박또박 말하는 애국학생의 열정이 돋보이는 종호학생의 태도가 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였다. 1997년 봄 김영삼 대통령이 한총련, 범민련을 이적규정한 지 금년으로 9년째 접어들었다. 종호학생은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 34일째 되는 날 가혹하게 붙잡혀가서 분하고도 가슴이 쓰렸

다. 이 나라 건국 이래 많은 젊은이가 피를 흘리고 죽고 갇히고 하였다. 강대국의 틈새에서 일제강점 36년, 6·25전쟁, 군부독재정권 30여년을 겪으면서 너무도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다. 특히 대학생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이 정도나마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던 자들은 애꿎은 백성을 죽이고 자기들 권력유지를 위해 수없는 인권유린과 조작 공작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분단을 고착화하고 친일친미로 출세하여 치부(致富)까지 한 이자들이 이제야말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짓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2월 중순에 있을 대통령 3돌 취임 때는 꼭 90여명의 양심수가 모두 사면되고 정치수배자도 수배해제되고 8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수도 석방되기 바란다.

인권이 취약한 나라는 국력도 취약하다. 국민들의 개혁의지로 과반의석을 확보했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보다 성숙하고 실력이 있는 의원이 되기를 바란다. 옳은 정책으로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대통령과 위정자 되기를 소망하며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단행하여야 한다. 민주가족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빕니다.

27)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풍경 2004년 12월 6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명이 다 되었구나.

고혈압인 나는 겨울나기를 꺼린다. 감옥살이 양심수들을 온기 없는 감방 속에서 또다시 고생시킬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100여명인 양심수들은 노동자, 도시빈민(철거민),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국가보안법 철폐가 민가협이 19년 숙원이지만 10월 4일 시청앞 잔디밭과 11월 장충체육관을 꽉 메운 인파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외치는 극우수구파들이 필사적으로 동원한 무리들이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친미로 찬송하며 손에는 성조기로 부시를 찬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허수아비를 불태우며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를 드높이 외쳤다. 신음하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은 아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며 나만 풍족한 이기적인 '나물라 신자들'의 기도를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스럽다. 56년간 이 땅의 양심들에게 총칼로 다스리고 애꿎은 희생자를 만들어 국민을 속여 온 악법 국가보안법아! 그뿌리가 아무리 넓고 크게 퍼져도 이제는 제 명이 다 되었구나.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간절한 글을 담은 리본을 묶은 빨간 장미꽃을 우

리당 의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의총 결과 '형법보완 폐지' 쪽으로 택하였다고 해서 실망한 가운데 완전 폐지 투쟁의지로 다시 숨을 고르니 민가협 19년 투쟁에 파노라마가 깊은 밤 나의 머리 속을 일순 지나갔다. 한마디로 힘든 세월이었다. 50대중반의 어머니는 어느덧 온갖 희로애락을 겪은 70대중반의 이제는 몸이 부자유스럽고 골골하는 할미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뚝뚝하며 나름대로의 보람과 긍지를 간직하고 오늘도 내일도 싸우려다. 민가협 엄마! 그대는 용감했고 내 자식 네 자식 구별없이 아들, 딸들을 아꼈고 사랑했었다.

여의도 농성장으로

11월 2일 4개법안 국회처리를 위해 여의도 국회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저녁마다 촛불집회로 결의하고 오전에는 국회주변 행진으로 경각심을 주는 행사가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나는 건강을 이유로 촛불행진을 자주 빠져서 미안하고 애가 탄다. 악법이 이 나라에 56년간이나 뿌리를 내려, 분단을 미끼로 군부독재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공포스러운 칼날을 휘둘러 댔으니 그 피해는 필설로 표현하기 어렵다. 우리 참가자 일동은 밤낮으로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국회에 있는 입법자들이 성의껏 의사일정에 하자 없이 일하기를 원하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11년이나 하고 있는 목요집회도 농성장앞에 하고 민가협 엄마로써 각오를 새로이 하였다. 그러나 농성 열흘째 목요집회는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하였다. 이유는 이부영 당대표가 "산이 높으면 낮은대로 물이 깊으면 얕은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수구꼴통들에게 미적거리는 눈치로 대하는 것에 분개하여 당사앞으로 모여서 규탄성토를 한 것이다.

18일 목요집회는 여의도 농성장 앞에 이미 자리를 차지한 대형무대차와 귀청 울리는 고성능 마이크로 대한노인회의 수상한 집회가 있어 길 건너 과거청산 농성장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행가를 부르고 악을 쓰는 모습은 다시 고친 집시법의 소음규제가 무색하다. 오랫동안 떠들다가 해질무렵 해산하였는데 같이 싸우면 그자들의 의도에 말려들까봐 피하였다. 한심스러운 노인들이 많이 동원되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분개스러웠다. "곱게 늙자, 더럽게 늙지 말자"며 평소 나의 타령이 나오고 만다. 2주일간이나 국정을 팽개치고 장외로 나돌던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모여 차라리 아주 그만 두고 해체하라고 외쳤다. 한나라당과 박근혜대표는 계속 정체성 타령이나 하며 정권 탈환에 눈이 어두워 정치 대안 없이 오로지 반대와 파행만 일삼고 있다. 과연 일당 80만원의 국회의원 업무는 부끄러움 없이 이땅에 살림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국민의 혈세가 너무 아깝다. 이제는 의원성적표가 필요하며 엄숙한 국민의 점검과 탄정이 필요한때가 왔다. 밀실에서 슬쩍 모의하고 교묘히 비리나 저지르며 정치꾼 행세를 하는 자들은 이제 그만 국민의 힘으로 퇴출되어야 된다. 또 와중에 국회법사위가 열린다 해서

힘을 내라고 민가협 어머니들은 우리당 의원들 방을 방문하여 '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일정대로 성사하여 달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했다.

12년 전이 생생하건만

국회앞 여의도 농성장은 68명의 식발과 500여명의 단식으로 9일째(12월14일 현재) 이어 오고 있다. 갈지자(之)로 우왕자왕하는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이틀간 밤샘 농성도 하였다. 한겨울 12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보안법 철폐만을 위해 투쟁한다.

잔꾀부리는 한나라당 꼴은 차라리 측은하다. 법안 상정이 두려워 안으로 문을 잠그고 법사위 개최를 방해하는 이자들은 현역의원을 간첩으로 몰아 이런저런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는 신물이 나는 색깔공세로 집요하게 달라붙는 한나라당의 뻔한 술책이 보안법 말기가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1992년 9월 중순경 60여명의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안기부가 잡아가고 그 사건 이름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고 세상에 공포하였다. 그리고 고문으로 억지 자백시켜 감옥으로 보냈었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인 정형근 안기부차장이 직접 지휘하여 그 공을 뽐냈었다. 양총관 양심수에 대해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걸 보니 이자들 특유의 '근거유무론'에 입맛이 쓰다. 그들의 악독한 행적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말이다.

힘없는 국민들의 비탄과 불안을 외면하는 얼치기 정치꾼들이 가증스럽다. 고루 잘 살고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사는 국민들의 안녕만 염두에 두는 정치가를 우리는 원한다. 정부여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입으로만이 아닌 실천하는 참일꾼의 모습으로 분골쇄신하여 개혁에 힘쓰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민주가족 여러분! 모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28)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4년 9월 59호

속상한 마음에 응수하니...

국가보안법 폐지와 폐지 반대로 요사이 세상이 시끄럽다.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가정체성을 지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고 단언한다. 또 1,500여명의 수구인물들이 지난 시절 권세영달의 효자 노릇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까봐 도심집회에서 고성능 마이크로 악을 쓴다.

11년 계속되어온 탑골공원 앞 민가협 목요집회도 시끄럽다. '양심수 전원석방하

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외치면, 인생길이 그리 많지 않은 노인들이 험상궂게 "무슨 짓들이냐, 빨갱이년들"라고 삿대질한다. 그러면 나도 질새라 응수한다. "듣기 싫으면 저리가!"

그뿐인가. TV토론도 흑백으로 갈라져서 질새라 주거나 받거나, 반대들의 사고논리에 분개한다. 온갖 이슈에 얼굴은 내미는 교수 제성호, 노무현 대통령 물고 늘어지는 서경석 목사, 수구냉전 달변의 이동복 안기부 전 차장, 정형근의 싱글벙글 께변 등 저런 자들의 의식변화는 죽어야 없어지겠지 하면서 TV를 껐다가 또 켜다.

91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

불법으로 체포되어 살인자 같은 수사관들에게 허위자백 강요당하고 전기고문, 물고문을 당하며 수없이 까물어 찢다 깨어나는 소름끼친 폭력을 겪고 공포에 짓눌린 적이 있는가! 조작간첩이나 허위 자백강요로 저네들 정권유지도구로서 억지죄인이 돼 봤느냐 말이다. 정치꾼 이동복은 편안한 소리를 한다. 1991년 이후의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 없는 나라지키는 소중한 법"이라고 우긴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이선실 간첩단, 남조선 노동당 사건"을 만들어, 추석을 전후하여 굴비역듯 수십명을 잡아갔고 사노맹 사건도 3차, 4차, 우려먹으며 또 잡고 잡아갔다. 학생운동도 마찬가지로 책 한 권, 전단 한 장에 국가보안법으로 엮어 영문도 모른 가족들은 울고 불고 자식들을 찾아다녔다. 부모들은 놀란 나머지 급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재형이 아버지는 4달만에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서울대 최동 아버지는 분신한 아들 49재 지나고 얼마 후 급사하였다.

양심수는 여전히

1996년 8·15행사를 하는 한총련을 친북세력으로 몰아 한총련 때려잡기는 그 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흑독하고 과격한 진압으로 기억된다. 김영삼 정권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작전으로 5일간을 헬리콥터를 연세대 상공에 띄웠다. 헬리콥터 6대는 최루액 담아 굶주린 학생들에게 뿌렸고 백골부대를 동원하여 새벽에 야만적으로 수천명 잡아갔다. 손을 머리에 올리고 앉은 걸음으로 개갈이 끌고 갔다. 1997년부터는 국가보안법의 이적규정으로 오늘날까지 한총련을 움아매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민가협 통계표를 화면에 비추면서 "봐요 점점 국가보안법 사범이 줄고 있는데 무엇하러 국가보안법을 없애려하느냐"한다.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독재정권이 필요에 따라 세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겁주기 위해, 사건을 만들어 재미를 봤으나 이제는 속이기가 쉽지 않아 그때보다 구속자수가 줄었던 것이라고. 그래도 침소봉대로 사건을 만드는 공안수사관의 관행은 여전히 양심수는 끊이지 않는다. 이런 자의 논리는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북쪽이 쳐들어와

적화통일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56년간의 악법의 뿌리는 크고 깊은 것이리라. 보안법 덕으로 세와 보를 누린 기득권의 죄가 너무 커서 과거 청산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보안법의 독소조항은 많지만 한나라당은 가족과 사회 서로 미워하고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불고지죄까지 사수한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시절 삼척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아버지 외 3명, 사형집행,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어머니, 딸은 감옥, 아들 둘은 무기징역, 자살 등 친인척까지 풍지박산케 만든 이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세상에 있으면 안된다. 결혼을 앞둔 아들을 고발한 군인아버지는 고민하다 심장마비로 죽었고 약혼은 취소되고 결혼은 깨어지고 가정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어진 경우도 있었다.

꼭 폐지해야 한다

얼마 전, 민가협 어머니들은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를 방문하였다. 폐지반대의원을 만나봤던 것이다. '이런 자가 왜 국회의원배지를 달았을까'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위인들이 수도룩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중 여당의 인권위원장인 조성래의원은 목에 힘을 주며 우리 일행을 꾸짖는다. "한풀이하느냐, 피해자 가족들이 왜 나다니냐"며 이맛살을 찡그리며 23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를 해서 원래는 폐지를 주장했는데 의원이 되니깐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큰소리 내지 말고 폐지 반대자가 이해 할 때까지 10년, 50년 100년이라도 기다려야 되며 길게 1000년도 때에 따라 기다려야 한다고 이죽댄다. 면담 도중 일어난 어머니들은 하루빨리 의원직 사퇴하고 부산으로 가라고 했다. 여당의 인권위원장이라는 위인이 인권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기는 커녕 의견을 들을 자세조차 갖지 못하였으니 한심한 일이다. 당의 인권위원장은 제 힘자랑이나 하는 곳이 아니며 국민의 아픔, 행복을 함께 하고 연구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항간에 50여개 주은 금배찌가 열린우리당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열린우리당에 당부한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하도록 해야한다.

536회 목요일회를 함께 한 엠네스티 등 13개국 인권활동가들도 간절히, 국가보안법폐지를 함께 외쳤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루이스 아버 여사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우리 국민들은 더욱 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냉전주의, 가장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따뜻한 인간애와 한민족의 피가 통하는 남북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스스로 애국하고 발전시키는 자유로움과 협력심이 넘쳐 날 것을 확신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존치론자들에게도 말한다. 56년간 시기상조네, 국가안보네 울귀먹은 논리는 현재나 미래나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는 교묘한 선전과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 동안 가졌던 관행을 버려야 한다. 17대 국회는 주저없이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29)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04년 8월 58호

불붙듯이 뜨겁고 덥던 올해 여름더위에도 죄 없이 옥살이하는 양심수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기온이 내려가 겨우 숨돌리려니 태풍이 오네 하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제 잘났다고 빠져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니 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예방하여 조금이라도 손실과 희생을 줄이는 방책이 국가정책의 몫으로 노력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재소자들의 접견권, 운동권 보장을 보장하라

감옥은 겨울과 여름만 있다고 합시다마는 자유를 빼앗기고 추운 겨울과 감방에서 떨고 있는 양심수와 좁은 곳에서 후덥지근한 무더위를 피하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양심수 여러분들 정말 고생합니다. 몇 십 년 전에는 더 열악한 곳에서 더 낮은 수준의 처우에 교도행정, 거기에다 술한 인권침해까지 당하면서 수 십 년 옥살이한 비전향 장기수분들의 기나긴 수감생활 보다 현재 고생하는 양심수들에게는 좀 나아졌다는 서글픈 비교도 우리 어머니들은 합니다.

얼마 전 만난 법무부 보안과 직원은 주5일제로 인한 수감자들의 토요일 접견, 운동 등의 사무를 펼치자면 3,300명의 교도관을 채용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대책으로 자기네들 주5일 근무실시는 재빠르게 하면서 수감자들의 접견, 운동은 나 몰라라 하니 교도행정의 맹점은 확실히 드러나고 말았지요. 갇힌 몸이니 참아라 이런 공론으로 양심수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은 속이 상하여 법무부를 야단치는 것입니다. 양심수 민경우씨는 단식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법무부와 교정국은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인권문제를 소홀히 한 정권은 희망이 없다.

검찰 3과는 한술 더 떠서 8·15양심수석방문제를 법무부 장관 면담하자는 민가협 의 공문을 장관 면담 불가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유는 장관이 바뀌고 뒤 송송한데 청와대가 올8·15 양심수 사면석방을 없다고 하니 명령대로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머니들은 또다시 두툼한 양심수 자료들을 들고 청와대 시민사회 담당실을 찾아갔습니다. 여름 휴가라 텅 빈 사무실에 휴일 반납한 책임자만 앞이 보이지 않는 답변을 하니 속이 부쩍 상했습니다.

얼마전 방문한 여당의 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당의장과 많은 금궤지들을 만나서 그때 그때적당하게 장담하고 때만 되면 씻은 듯이 까먹어버리는 그자들을 생리를 잘 알면서도 끈질기게 19년 세월을 되풀이하여 양심수 석방을 외치는 어머니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장하기도 합니다. 8월 13일, 어머니들은 박정규 민정수석을 만나서 공격했습니다. 어수선한 정치일정에 양심수 석방은 꿈도 안 꾸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수 석방에 관심 없고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는 정권은 희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라살림하는데 서둘러서 8·15 사면·석방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철거민 사건으로 구속·수감 돼 있는 분들을 영등포, 서울 구치소에서 만났을 때 흐르는 눈물을 닦고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습니다. 만나는 위정자들에게 석방을 누누이 호소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 없는 위정자들로 인해 독재정권 시절보다 더 양심수석방 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더 힘을 내어 투쟁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간담회 참가하고 나서 열린우리당 안에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체면유지에 급급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폐지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린우리당만이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성사시키고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주당 심지어 한나라당의 지지자들까지 합하여 9월 정기국회에 꼭 폐지로 통과되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만 빼고 개정하자. 뼈대는 두고 다른 법으로 대체입법하자 이런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안되는 소리이고 56년간 써 먹던 반인권·반통일·반민주 악법을 없애는데 서로 힘을 모아 투쟁합시다. 어제 송두울 교수 저서 독후감 시상식때 저는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송두울 교수님 재판은 분노와 감동, 반전으로 결국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남과 북을 사랑한 교수님이 이 나라에서 직접 후배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육성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입니다. 송 교수님과 부인 정정희 씨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금까지 주었고 9개월의 악전고투를 통해 19년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하는 늘

은 어머니들을 향내나게 고무시켰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자유롭게 조국 한반도를 왕래하시고 평화통일을 기원하여 주십시오. 양심수 여러분 인내 끝에 행복이 오기를 바라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30) 파병철회! 외친 김선일씨를 추모에도한다.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하는 국회의원 각성하라
2004년 7월 57호

가슴속을 헤집는 소식

장마철이 왔다. 태풍 민들레는 소멸됐다지만 큰 비가 와서 벌써 수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제발 금년에는 큰 물난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7월 3일 토요일 저녁때 광화문 교보빌딩 종로 거리쪽에 많은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모여서 "파병철회, 김선일씨 추모 촛불 집회"를 가졌다. 때마침 비가 왔으나 우리는 개의치 않고 참혹한 죽음을 당한 김선일씨를 기리고 파병철회의 구호를 드높이 외쳤다. 그가 간지 20일 넘었건만 왜 이렇게도 마음이 아프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 학비를 벌기 위해 이라크 땅에 갔다 무장 폭도에게 잡혀 끔찍하게 세상을 떠난 김선일씨가 늙은 어미 민가협엄마들 가슴속을 헤집어 놓으니 안타깝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파병결정 불변"을 거듭 맹세하니, 고인은 죽음을 재촉하는 구실로 변해버린 것이다. 김선일씨가 외친 "파병철회"는 우리가 외친 구호와 똑같고 그렇게 죽기 싫다고 몸부림 쳤건만 기어이 끔찍한 죽음을 당해 버리고 말았다.

'모르쇠'정부

폭도들에게 잡혀간지 20여일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 서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외교부, 국정원 공무원들의 뻔뻔함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모방송사와 인터뷰하는 사월혁명회 조교수님은 "왜 촛불집회에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격앙 흥분하여 "이 나라 젊은이들이 이라크 전쟁터로 가는데 어찌 집에 있을 수 있나. 영국을 위시하여 많은 나라가 파병을 철회하고 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3,000명을 추가로 사지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한국은 미국의 일개 주로 전략한 노예국민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분해하는 것이 옆에 앉은 나에게도 절실히 전해온다.

국회는 각성해하 한다

어제 방송에 미군은 앞으로 이라크에 5년 반을 주둔할 계획이라고 한다. 매일 총격, 폭발이 가시지 않는 이라크땅에 노대통령은 파병이 지체됐다고 엄살을 부

린다. 한술 더 떠서 찬성하는 열린우리당이 더 알밋다. “한사람 죽었다고 파병철회하나?” “네오콘이 무서워 파병 불가피하다.” 등 여당에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넓은 부지에 큰 건물을 자리잡고 역시나 큰돈에 “정보는 국력이다”라고 써 놓은 국정원은 무엇을 했는가. 무고한 시민 빨갱이 만들기에 여념없던 그들은 이번일에 외무부하고 같이 침묵으로 수수방광만 하지 않았는가! 국민의 바람인 민주화와 개혁을 실천하라고 뽑은 선량들은 겨우 한다는 일이 “테러”를 당했으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여 다시 만들자고 의논했다니, 한심스럽다. 16대 국회때 시민인권단체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반대하여 법 제정에 실패한 법을 또 들먹거리는 그들은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크게 각성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이란 무엇인가?

전범 부시와 함께 하는 노대통령도 공범이요, 앞으로 김선일씨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나라 뺏긴 이라크인들의 심정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리라. 우리역시 같은 역사를 지니지 않았던가. 일제 37년 강점때, 독립을 원하는 애국인사들이 일본의 중요인물을 저격암살하였다. 지금도 후세들이 안중근, 윤봉길의사를 존경하고 교육하고 있다. 전쟁을 하지 않는 지역에 복지재건을 위해 파병한다고 우기지만 이라크인들은 오지말라고 협박한다. 한미동맹으로 군사파견을 요청한 부시패거리도 나쁘지만 일신의 안락을 염원하는 위정자와 친미세력이 더 위협스럽다. 무능한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권력의 날개를 더 달아서 대테러센타를 운영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책이 진정한 국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납치된 김선일씨를 방치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고선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언명한 노대통령의 결정이 진정한 국익이 될것인지 다시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국가보안법, 대체나 개정이 아닌 폐지를 하라!

악법은 다시 만들어져서는 안되며 우리도 여기 대응하여 다시 투쟁으로 몽칠 것이다.

정치새내기들에게 충고한다. 당리당락을 떠나, 바르게 정치를 하지 않는 위인은 곧 국민에게 버림받고 도태될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소신있게 일해주기 바란다.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는 정확하게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파병철회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또 한가지 노파심은 법무부가 직접 점검한다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작성”건이다.

50여년 보안법을 적용하여 수많은 양심수를 만들어 온 법무부가 과연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것인지 의심스럽다. 벌써 대체법이니 개폐론까지 짜집기 누더기 법안으로 쓸데없는 '아전인수'격인 또 하나의 악법을 만들지 염려스럽다. 나라 살림하는 지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경고를 다시 말하고 말한다.

31) 아, 푸르른 봄날에 부치는 그대 절규여!

2004년 5월 55호

전두환-노태우 독재정권시절, 많은 애국학생들이 희생되어 죽거나 스스로를 불태워 죽어갔다. 1986년 4월 28일, 신림동 네거리 서원빌딩 옥상에서 서울대 김세진, 이재호 두 학생이 분신했다. "반전반핵 양키고춤" "양키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라고 마지막까지 외치면서 쓰러졌다. 당시, 세상은 깜짝 놀랐다. 미국을 은인이라고 칭송하던 자들은 눈살찌푸리고 혀를 찼고 뜻있는 자들은 의로운 죽음을 추모하고 눈물을 흘렸다. 막내아들과 절친했던 재호는 평소 명랑쾌활한 젊은이였고 세진이는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책임감 강한 아름다운 젊은이였다고 한다. 아니다. 어떤 말로 칭송하고 애통해 하여도 모자랄만큼 장하고 장하다. 해마다 두 열사의 추모주일이 오면 18년 긴 세월이 흘렀건만 그리는 마음은 늘 경건하게 다가온다. 4월 28일, 동지들과 추모대책위가 주축이 되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두 열사 추모제를 지냈다. 추모제를 열사를 기억하며 모인 많은 이들이 서로의 결심을 다지는 것이다. 열사 부모님들도 오시고 민가협 어머니들도 많이 참석했다. 필자는 올해 또 추모사를 읽는 영광을 가졌다. 이맘때가 되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 늘 추위를 느끼는데 비장하게 간 열사의 기개가 바람이 되어 오는 것인가 여겨진다.

파란 나뭇잎이 너무도 고운 광장에 알록달록 철쭉이 어울려 피는 좋은 시절에 그 짧은 생을 마감한 두 열사의 결행이 두고두고 가슴을 아리게 한다. 나는 스스로 손끝에 성냥불 하나 대지 못하는 못난이가 아닌가. 감히 어찌 그 깊고 깊은 용기와 결단을 헤아릴 수 있을까. 또한 열사의 부모님들은 10여년 간을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자식의 뜻을 온 세상에 알렸다. 세진 어머니의 흘린 눈물은 그 얼마였으며 재호 어머니의 단식과 몸부림은 그 얼마였을까.

당시, 막내아들이 감옥에 잡혀갔던 필자로서는 절대로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의롭게 죽어간 자식은 아무 것도 모르는 어미들을 일깨워주고 저항하는 정신을 가르쳐주고 독재의 악독함과 민주주의가 소중함을 알려주고 나라의 자주와 통일을

가르쳐주었다. (이부분은 이미지로 갈아줘도 좋겠다)

세진이 묘소를 참배하면서(5월1일) 우리 일행은 고인을 추모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광주 망월동에 있는 재호 묘소는 지금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 잘 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공원이 하루빨리 완성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사들의 정신과 업적을 기릴 수 있었으면 한다.

요사이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참혹하게 죽이고 성고문과 고문을 하였다해서 세계가 시끄럽다. 그러면 그렇지. 억지 트집으로 이라크를 침공해 그 명분을 잃어갈 때, 부시가 다급하게 변명하고 달래고 구슬리고 있으나 이번에 드러난 그들의 잔인성으로 반미감정은 점점 커지며 이라크인들과 세계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미군은 지금이라도 빨리 철수해서 미국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고문과 억지자백, 조작사건은 년덜머리가 난다. 독재정권 시절 양심수들이 수없이 겪었고 그 가족들은 절취·통분하여 투쟁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도경 이근안 경감의 전기고문, 부천경찰서 문귀동 순경의 성고문사건, 안기부보안사대공분실 등의 갖가지 야만적인 고문행각은 만고에 규탄 받아 마땅하다. 요즘 많이 줄어든 편이나 시대를 타고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행각은 철저히 단절시켜야 한다. 이라크 고문사례는 미국CIA와 정부들이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하니, 철저히 조사하고 씨를 없애야 한다. 짐승만도 못한 고문과 폭력을 저지른 책임과 처벌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세진·재호 두 열사가 죽음으로 부르짖었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호전적인 부시 패거리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좌우되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자랑하지만 미국은 진정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 민족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원하고 분단이 없는 통일된 이 땅, 이 겨레를 소원한다.

정치권은 빨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힘을 모아주고 일을 해주기 바란다.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해제는 물론이고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단행해야 한다. 5월 26일 부처님 오신날 경축일에는 다 풀려나기 바란다. 송두율 교수, 민경우 사무처장은 감옥에서 나와 가족과 일터로 돌아가기 소망한다. 하나밖에 없는 몸을 불살라 햇불로 만든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일한만큼 대우받고 더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가협 어머니들은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32) 송고한 인간의 권리, 그 값어치를 날로 소중히 여기는 민가협의 정신 2004년 3월 53호

며칠 전, 미친 듯 퍼부었던 눈이 우리 집 마당에도 아직 많이 쌓여 있다. 대충 대충 치워놓은 눈 더미사이에 철쭉, 장미가지의 하루하루 연한 초록색이 눈에 띈다. 흰눈 폭격이란 말처럼 도시, 농촌 고속도로를 마비시켰건만, 새봄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재해도 엄청나며 비닐 농사 짓는 농부들이 절망에 찬 모습이 시청자인 나 역시 암담했었다. 자연재해의 위력이 가공스럽지만 재빨리 대처하는 위정자들 모습은 오간데 없고 뒷북치기, 늦장대처를 늘어놓으니 이래저래 국민들만 골탕먹는 것이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이번 2월말에서 3·1절에 걸쳐 양심수 석방을 소원하고 법무부, 청와대, 정당 등을 방문하고 현황을 알리며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었다. 민주노동당 후보 5명은 이번 사면 복권이 꼭 필요했고 어느 정도 약속 받은 바 있어서 어머니들은 필요한 문건을 들고 바쁘게 다녔었다. 그러나 막상 3·1절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매일 돈 먹은 놈 닥달하고, 총선당책 운운하면서 썩 구워 먹었는지 소식 불통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렇지. 제 버릇 개주라. 2월초 청와대 어느 비서는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금 석방문제 처리하는 부서도 확실치 않다고 하는 게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때 13명 내 놓더니, 1년 지나고는 그 김새조차 없고 양심수는 100여명에 이르러 추운 겨울을 보내고 김형주 학생, 송두율 교수, 민경우, 김종일씨 등을 하염없이 감옥살이시키고 있다. 죄없는 각계인사들을 가두어놓고 정치배들은 총선에 눈이 벌겍게 설치고 있으니 참 속상하다. 1986년도에 양심수는 1,500명이 넘어 구치소, 교도소는 만원사레 지경이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이란 죄목이 가장 흔했고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학부모들은 때로 몰려 (다니면서) 자식들의 석방을 외쳤었다. 체포와 고문으로 시종(일관)하는 검 경의 조서, 지독한 모함의 공소장은 재판관을 보는 어머니들의 분통을 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무죄를 믿었고 당국의 악랄한 기만적 죄인 만들기 수법을 규탄했었다. 그것이 오늘 민가협 엄마들의 석방운동이었고 감혀 있는 자식들은 소에서 구호와 저항하는 시를 매맞아 가면서, 지하감방에 끌려가면서, 계속 외쳤다. 소추의 잔인한 벌칙으로 끝없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바깥의 가족들은 무더기로 항의하고 농성하고 '내 새끼 살려내라, 석방하라'고 외쳤었다. 때로는 기절하고 교도관의 폭행에 부상하고 전경의 방패에 찍혀 피흘려도 어머니들은 이 한 목숨 바친다는 각오로 싸웠었다. 1989년도 국사범, 공안사범이라 불리는 장기수 선생님 석방까지 외쳐서 그야말로 양심수 석방운동은 술렁술렁

이 구치소, 저 교도소로 번져 우리 편 들어주는 단체와 정당을 찾아 호소하면서 발바닥이 달도록 전원석방을 세끼 밥보다 소중히 여겨 투쟁하였다.

전·노 군부독재 정권을 거쳐 김영삼 문민정부 때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싸운 적 있는 대통령이라 일말의 기대를 걸었건만 1993년 9월에 가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탑골공원 정문 앞에서 목요일 2시, 집회를 하게 된다. 오늘날 11년이 넘게 이어지는 이 집회는 전원석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김대중 대통령 때 장기수를 다 석방하고 북녘으로 보낸 것이 큰 소득이라고나 할까. 불행히도 악법 국가보안법과 양심수는 없어지지 않아서 지금껏 어머니들이 보랏빛 수건을 쓰고 긴 세월을 하루같이 집회를 하는 것이다. 본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것도 사회와 국가에게 누를 끼친 죄를 지었으면 고진감래(苦盡甘來)로 짓값을 하겠으나 양심수는 죄가 없다. 아니 오히려 깨끗한 양심으로 애국하고 실천하니 나라에서 상을 줘도 시원찮은데 과거 권력 연장의 욕심, 지도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과 공작으로 만들어진 죄인을 우리 어머니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석방되어 나와도 불행한 가정도 많고 개인의 건강이 평생의 병이 되어버리고 사회 복귀도 힘든 양심수도 많이 있다. 1985년 12월 12일, 민가협 창립 이래 19년 동안 우리 어머니 회원들은 한때 300명에서 지금 10분의 1로 줄었으나 그때의 피나고 절실한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숭고한 인간의 권리를 날로 그 값어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요사이 민가협이 실천하고 있는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도 이 정신의 일환이다. 조순덕 회장 자택으로, 사무실로 종로경찰서 출두요구서가 날아오나, 우리 어머니들은 굴하지 않고 불신고로 탑골공원 정문에서 집회를 감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새겨들어라. 시민의 소리,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무조건 잠재우기 위해 탄압봉쇄 일변도의 조치를 경찰력에만 맡기면 된다고 여기는 모양인데 헌법에 보장받은 국민의 집회 시위 권리를 왜곡하고 변질시켜 자기네들 편안하게 지낼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이미 있던 그 법도 힘없는 국민은 그 얼마나 피 흘리며 다쳤고 실명하였고 경찰의 과잉 폭력으로 이한열, 강경대, 이수석 열사들이 희생되어 갔지 않는가? 한가한 구석지에서 소곤소곤 집회하라는 법은 웃기는 일이다. 늙은 어미들이지만 무능한 거수기(擧手機)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복종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 민주당의 함승희 의원은 매우 위험한 수구파公安검사 출신으로 이런 인사가 다시 선량(選良) 배지를 단다면 사회 곳곳에 불합리한 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민가협 어머니들이여, 3월에도 확실히 석방운동을 하고

총선에 불필요한 인물은 배제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600여명의 양심수들에게도 어머니들의 마음을 함께 합니다. 강철민, 임태훈씨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

33) 민중의 힘

2004년 2월 52호

2월 9일은 이라크 추가 파병안의 국회 통과 표결과 FTA(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 등으로 우리 민중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결과적으로 추가 파병안은 국방위에서 찬성14명, 반대 2명으로 의결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여 16일날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말이 났다. 농민들 2만명의 격렬시위로 FTA 비준동의안도 역시 본 회의에서 처리가 유보되었다. 의원들이야 나름대로 활동했다 하겠으나 나는 이날 보여준 농민과 시민들의 애끓는 여망의 힘으로 이 정도나마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 전날에 여독(여행했었다)이 아직 안 풀렸지만 나는 시간 맞춰 가고자 여의도 국민은행 앞 집회장소로 향했다. 개악집시법의 힘으로 기승부린 경찰은 국회로 가는 지하도를 우선 봉쇄하였고, 차단은 KBS 뒷길 마저 막고 수많은 경찰버스가 서로 울타리가 되어 꽉 막아 버린 상태여서 차를 운전하는 남편은 이리저리 길을 찾아 봤으나 오로지 국회앞 차로만 열어놓아서 잘 못 걷는 나는 할 수 없이 내려서 전경 떼거리 속을 빠져나와 이미 시작한 집회 한자락에 앉을 수 있었다. 많은 대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의젓하게 앉아있었고 가뜩이나 지하철 공사로 육중한 차단벽과 운집한 전경과 버스 절벽으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다. 한심스러운 경찰의 작전 아닌 작전을 눈앞에 보려니 울분보다 한심스러운 생각이 맴돌았다. 서로 원수도 아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삼엄하게 대처해야 하나. 그것도 모자라 버스 지붕으로 올라가 넓은 방패막이까지 들고 서 있는 게 아닌가. 여차 싸움이 붙으면 매우 위험스런 차단벽이었다.

오전 1차 집회, 오후 2차 집회도 끝나고 나니 4시간만에 허리 수술 자리에 무리가 와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어머니들의 부축을 받아 차를 타고 왔다. 저녁 무렵(6시경),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FTA 비준동의안 결의 때 2만여명의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한다. 피투성이로 쓰러진 농민 한 분을 어서 병원으로 싣고 가라고 호통을 쳐 소용돌이 속에서나마 민가협 어머니들 3명은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도 젊은 학생들의 힘찬 저항도 필요했

지만 많은 민가협, 유가협 어머니들의 한 일도 큰 몫을 하고 요긴하게 쓰였었다. 밤9시 뉴스를 보고 나도 모르게 피가 끊어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도같은 농민들의 함성과 힘을 보았고 쓰러진 사람의 몸통이를 마구 때리는 전경들의 폭력도 보았다. 무장한 젊은 전경들이 맨손의 민중들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모습은 전쟁 그것이었다. 불 붙은 거리, 서로 밀고 밀치며 넘어지는 광경, 모두 다 우리의 핏줄이요, 아들과 아버지 삼촌이 아닌가. 차떼기 국회, 시궁창 국회, 그 속에 국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익 앞세워 저네들 잇속과 마음 편안한 대로 처리하려는 위정자들. 이 광경을 나와서 보라. 밤 11시까지 계속된 민중의 처절한 의사와 행동을 보라.

또 한마디 이 말도 해야겠다. 한나라당이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서청원 의원이 즉시 풀려나와 희희낙낙하며 동료의원에게 감사하다는 꼴볼건에 어의가 없었다. 이건 뭔가.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서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못나오나. 죄 없이 갇혀있는 양심수 100여명이 있고 정치수배자도 부지기수인데 검찰에서 범죄 증거가 있어서 잡혀간 현역 의원을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또 어거지를 부려 강제로 석방시킨 것이다. 지난 12월에 비리 혐의에 7명의 의원을 체포 동의안을 전원 부결시켜 방탄 국회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더니 전격적으로 기습 통과한 이들의 횡포는 시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후안무치의 전형으로 보인 이런 자들은 절대로 국민이 뽑아서는 안 되는 낙천·낙선운동으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15년 전, 한때 서 의원은 민가협을 후원한 회원이기도 했다. 추악하게 변모하는 정치인이 한둘이 아닌 세상이 속터지기도 하다.

청와대는 FTA 비준동의안, 파병안이 유보 되었다고 실망했다고 전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무엇이 국익인지 맑은 정신으로 다시 결정하라. 3천 7백명이 보내진다는 이라크 키르쿠크는 매우 불안하여 로켓트가 날아오고 총성이 그치지 않는 위험지구라고 한다. 왜 부시가 저지른 전쟁 뒷바라지를 한국군이 가서 수습해야 하는가. 우리 자식들이 무슨 이유로 이라크인을 적으로 하여 하나뿐인 목숨을 내놔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 한국이 부시 정국의 속국인가, 아니면 무슨 말 못 할 약점이라도 있는가. 북핵을 빙자해서 지레 복지부동하는 노정권이 한심하다.

앞으로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다. 힘없고 뺨없는 약한 국민이 아닌 할 수 있는데 까지 투쟁하는 저력을 보여주자면 더 많은 민중세력이 필요하다. 남녀노소 다 지혜를 짜서 우리의 애국심을 발휘할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

문이다. 민가협 어머니들, 추위도 나갑시다.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이 모이면 승리합니다. 2월말은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날로 여기고 열심히 땀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

34) 갑신년 새해, 남의 말도 소중하고 나의 생각도 들어주는 세상을 소망하며,
2004년 1월 51호

2004년 갑신년.

지난해 12월은 참으로 바쁘게 보냈다. 민가협 15회 인권콘서트 준비계획에 어머니들 몫은 티켓 판매였다. 게다가 파병반대, 테러방지법 철폐 등 연대투쟁이다 해서 나는 수술 후 아직 영글지 않는 허리힘을 짜내어 공공거리며 어머니들과 함께 했었다. 불황기에 이나마 모인 관중에게 감사하며 공연을 겨우 마치고 나니 내 개인적인 가정행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과의 50년 인생행로를 자식들이 기념해 준다 해서 조촐하게 목사님, 친지, 민가협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결혼 후, 자식들을 양육하고 장성하여 출가시킬 때까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중에서 가장 나를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관심과 각오를 다짐하는 일상은 역시 민가협 회원이라는 사명감 아닌 결심이 아닌가 싶다.

19년째 민가협 활동을 보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너무 빨리 지나 간 듯 하다.

1987년 겨울, 박종철 학생이 물고문으로 원통하게 죽었을 때 우리 민가협 엄마들은 유난히도 많이 울고 분노했었고 거리거리에서 울부짖으며 종철이를 살려내라고 외쳤다. 전두환 독재타도를 외치며 자욱한 최루탄 가스에 헛구역질하며 끌려가는 자식들을 구하고자 전경과 백골부대원의 가공스러운 손목을 비틀고 턱 언저리를 쥐어박으며 학생들을 놓치게 하였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민주화운동에 참가했으나 새로운 그날에 대한 열망은 지치지 않아서 매일 거리를 싸다녔다. 이만큼 하면 좋은 세상이 오고 저렇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오리라 하는 희망은 큰 파도와 같아서 구호를 외치는 민중들의 열기는 온 천지에 진동하고 고생도 마다 않고 열심히 뛰었다.

2004년 1월 3일과 5일, 동글레 차를 끓여서 병에 넣고 식기 전에 여의도 국회 앞 범민련 이라크 파병반대 단식농성장에 함께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건너편 한나라당 건물이 보이고 저 멀리 국회 의사당 지붕이 선명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작자

들은 어찌하여 이 엄동설한에 70,80세 된 어른들의 단식농성을 외면하는지. 국 록을 먹고 나라살림 제대로 해야 하는 정치꾼들은 몽땅 돈만 밝히는 도둑 떼였 던가. 자기네들 집권을 기정사실로 삼아 정경유착의 본보기(차떼기)로 거액을 굶 어모은 자들이 버젓이 남의 피를 뽑겠다고 국회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료의원들의 비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범죄의원에게 축하인사까 지 하는 자들이 우리가 뽑은 선량(選良)인가.

100일 후에 있을 총선에는 제발 정신 차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항간에 서 말하기를 한나라당의 500억 탄로는 빙산의 일각이라나. 한나라 당이 대기업 에 요구한 돈 외에 일반인에게 요구한 액수는 그 얼마인가 가히 짐작이 간다. 남 의 당 뒷조사나 하고 꼬리 잡고 늘어지는 일그러진 얼굴들, 그뿐 아니라 미국에 빌붙어서 속히 파병을 성사하라고 외치는 한나라당 의원들, 테러방지법도 어서 타결하라고 하는 정형근, 함승희 의원, 농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FTA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성사하라고 재촉하는 정치꾼들, 의문사 가족 의 애타는 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의문사 특별개정안을 놓고서 서로 책임 전가 하는 의원님들, 침략국 부시에게 아부하고 합세하는 위정자들, 갖가지 행태가 작 년에 이어 고즈넉이 올해로 넘어오고 말았다.

나는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쫓대 있게, 소신 있게 나라일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아무 대안 없이 농민 대표와 만나 FTA 비준 처리를 구슬리는 모습이 안 타깝다. 농사지어서 살아가는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다 잘 살 수 있는 대안 없이 무턱대고 참아라고만 하니, 말이 안 된다. 수 만 명의 농민들의 성난 함성을 위 정자들은 잘 새기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 벌써 농민 운동가들이 하나 둘씩 처절하게 세상을 하직하지 않았는가.

1월 6일, 송두율 교수의 5차 재판 날이었다. 빼곡이 매운 방청석은 인상이 험상 곳은 정체불명의 무리들로 꽉 찼다. 모두진술 마친 교수님께 손뼉 치던 나는 호 되게 핀잔을 들었고, 입장하는 교수에게 몇 사람이 박수를 치니 웬 남자가 '여기 가 김일성 xxx냐'라고 살기 등등 외치더니 퇴장 당했다. 재판정의 공기는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긴장분위기로 가득 차고 적개심이 느껴진다. 극우패거리들이 빨 갱이 재판이라고 일부러 동원해서 오고 있다. 그들은 50여년이 넘도록 흑백논리 로 미워하고 이를 갈고 원수시 하니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은 언제 이를 수 있는 지 맘이 착잡해 진다. 길승흠 전의원의 증언은 송 교수의 입장을 도와주는 모습 으로 보여 고마웠다. 그러나 민가협 어머니들은 끝까지 못보고 나왔다.

국민대 총학생회장이 성북경찰서에 연행되었다 해서 규탄 집회장으로 향했기 때 문이다. 오래된 수배생활에 병이 생긴 학생을 한총련 불탈퇴라고 하여 수술한지 얼마 안 된 환자를 잡아갔다는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 국가보안법 위반

이라고 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잡아가는 보안수사관이 얄밟기 그지없다. 나 중에야 불구속처리로 결정했다고 하나 괴씸하기 그지없다. 학생의 어머니도 위험 한 뇌종양을 앓고 계신다고 한다.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물 건너갔나? 민가협 6년간의 투쟁과 목은 구호 중 하나인 이적규정철회가 2004년도에는 꼭 실현되어 야 하겠다. 140명이 넘는 양심수도 꼭 석방되어야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도 이루 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권 10개월 동안 우왕좌왕 넘어지고 자빠지며 빛을 보지 못한 사안들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투쟁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내 양 심을 지키고자 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 600여명도 어서 석방되고, 인권의 어두운 그늘에서 신음하는 소외된 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겠다. 남의 말도 소중하 고 나의 생각도 들어주는 세상에 서로 사랑하고 아픔을 나누는 이웃이 되고 싶 다.

민가협 어머니들이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손에 손을 잡고 뛰 어 봅시다.

35)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

2003년 11월 50호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파란하늘은 맑기만 하고 울긋불긋 단풍든 산야는 결실의 가을이 왔고 풍족한 계 절이 왔음을 알려주건만, 요사이 연달아 일어나는 노동자의 자살은 늙은 어미들 의 가슴을 저며놓고 치미는 분노는 절망감 마저 인다.

나를 나아 키워주신 부모님을 뒤로하고 소중한 처자식을 놔두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스스로 죽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자의 권익과 차 별 없는 대우를 위해서 항의 하다 하다 무감각한 정부와 경영자를 향하여 비장 한 경고와 각성을 위해서 가셨다고 한다. 고공 35m 크레인에서 농성한지 90여 일 만에 세상을 하직한 김주익 열사(한진중공업 노조지회장)는 유서에다 "20년을 일해도 전보다 생활이 나아짐이 없고 노동자의 파업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회사의 처리를 신랄하게 외쳤었다. 노조의 요구조건은 불 법이라 목살하며, 해고, 구금, 가압류, 손배소가 다반사요, 가족들은 길거리로 내 쫓기게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 나라발전의 원동력인 산업일꾼을 이렇게 홀대 하고 뭉개도 옳은 일인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많은 이익을 울려, 돈 처분이 곤란한 사용자들의 무자비하고 안이한 방침에 모조리 철폐를 가하고 싶 은 충동이 생긴다. 위정자들이 국민의 불만과 요구를 모르쇠하면 그들의 가는 마

지막 귀착지는 무덤으로 가는 길밖에 더 있겠는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모·애도하는 바이다. 총파업이 오기 전에, 정부는 늦었지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보통 국민은 열심히 일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을 소원하는 것이다. 몇몇 부자들은 불법으로 막대한 금액을 정치꾼에게 주고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인색하다. 이런 자들은 가차없이 벌을 주고 도로 받아 내어, 빈익빈 부익부인 현실에 놓인 사람들을 고민하는 정치를 하도록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양심세력이며, 함께 먼저 가신 이들의 뜻을 받들어 투쟁합시다.

무조건 반대한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2차 이라크파병을 무조건 반대한다. 부시 패거리가 침공한 전쟁의 뒤치닥거리를 이 나라 젊은이들이 왜 해야 하는가. 2003년 11월 1일 바그다드의 테러로 16명의 미국인이 죽었다. 불타는 차량을 둘러싸고 이라크인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파병은 커녕 하루 빨리 전 미군은 이라크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다. 온통 이 나라도 시끌시끌하다. 날마다 파병반대 시위 운동이 끊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한 실익이 뭔지 옳게 판단하고 파병결정을 철회하여라. 국가의 동량을 사지에 보내놓고 막대한 군비를 쓰고 미국 부시에게 빌붙어 살자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라. 흑여, 파병을 찬양고무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그 아들이 모조리 자비로 이라크에 가면 모를까. 심사숙고하여 위정자들은 신중하게 파병철회를 결정하도록 하라! 우리 민가협 어머니 이름으로 절대 반대한다.

우리 자식들의 그간 희생으로도 지긋지긋한 탄압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하면 다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이 세상의 무고한 젊은이의 희생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 때 유수한 지식인인 친일파들은 일본을 위해 군대가라고 권장, 독려했었다.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인간상들이 내 일신 평안을 위해 친미 수구패들이 아우성치는 꼴이다. 국민을 실망케하고 속이는 지도자는 곧 쫓겨나게 돼 있는 것이 유구한 인류역사의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대국이라고 영원히 강하지 않고 그 변천은 오묘하고 뿌린 죄의 씨앗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짐을 배워 온 진리가 아닌가! 부도 권력도 덧없이 변천하는 삶,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은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여기저기 올바른 소리를 내고자 동분서주한다. 참여정부 탄생 이래 110여명이 넘는 양심수와 많은 100여명의 정치수배자를 자유롭게 하라.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갈망하고 뜻을 이루도록 투쟁한다.

국정원은 필요없다

테러방지법은 "인권에 대한 테러"라고 이계수 교수는 부르짖는다. "테러방지법"…… 2001년도에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뭉쳐, 잘 싸워 물리쳤다고 좋아했는데, 금년 들어, 마치 죽은 악귀가 되살아 난 듯 소름끼친다. 저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다시 국정원으로 이름 바꾼, 필요 없는 기구가 옛 권력이 그리워 집요하게 목숨 바쳐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꼴이 수상쩍다. 또 국회 정보통신위의 몇몇 금배씨가 (정형근, 함승희) 복치고 장단맞추고 있으니 입쌀스럽다. 테러국 북한을 죽치고 그 자들을 응징하잔다. 한때 공안검사, 안기부차장으로 악랄하게 굴던 이들은 지금도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다. 수많은 애국인사와 학생들을 "빨갱이사냥"으로 감옥으로 보낸 저네들 공로가 대단한 줄 아니 죽어야 그칠 수 있을까? 늘 주장하듯, 우리 엄마들은 국정원 해체를 부르짖는다. 조그마한 "해외정보사무실"로도 충분한 국정원 건물은 공원이거나 학교로 전용되기 원한다. 고문과 조작으로 온갖 오욕과 악명으로 얼룩진 국정원은 필요 없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국정원 개혁을 한다더니 요사이, 또 흐지부지 하다. 모두 주지하듯, 현존하고 있는 여러 정부 기관이나 법으로도 얼마든지 "테러"발생시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이 필요한가? 방법, 경찰에서 긴급구조본부까지 세밀히 짜여진 역할 분담기구가 있지 않은가. 국방부, 법무부를 제압하고 대테러센터장이 지휘하여 군 출동을 명령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한계로 수많은 죄인을 만들어 낼 이 법은 절대로 만들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있고 민주, 자주, 통일 운동이 있는 한 어떻게든 굴레를 씌워, 죄인을 만들 그들이 아닌가. 무능한 정보통신상임위원들이 앞을 못보고 통과시킨다면, 우리 민가협뿐 아니라 뜻 있는 국민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다.

투쟁! 투쟁!

36) 네 가지 얘기 2003년 10월 49호

금년 추석 이후부터 세상이 참 어수선했다. 추석명절도 끝나기 전에 태풍 "매미"는 제주도부터 시작해 부산을 강타하고, 영호남을 몰인정하게 휩쓸고, 울릉도를 할퀴었다. 폭우·해일·홍수·하천범람은 물론이요, 수마의 발톱은 많은 인명피해, 가옥파괴로 논밭은 없어지고 국토를 처참히 상처를 내버렸다. 모든 걸 잃어버린 연세 많은 농부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TV화면으로 편안히 보기

가 미안하여 함께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작년 수재민이 금년에 수재를 또 겪었다하니 울분이 불끈 솟아오른다. 낙동강 범람에 대해 어떤 농부가 강하게 책임을 추궁하자 “비가 하도 많이 와서”라고 어쩔 수 없었다는 해당 공무원들의 말 같지 않은 답변이 알미웠다. 일선 장병과 많은 도우미들이 뒷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방대한 잔해와 큰 자연환경 손실이 인재로 인한 것이 많다니 더욱 안타깝다. 원인을 놓고 위정자들과 정부의 처리방식이 너무 미진하며 이런 안이한 재해대책들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 수재의연금 신속히 지급하여 “절망에 죽고 싶다”는 그분들을 만 분 지 일이라도 위로해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치산치수’라고 물을 잘 다스려야 똑똑한 임금이라고 옛부터 말해왔다. 예방책을 꼭 필요한 곳에 바로 실시하기 바란다. 수재민께서는 꼭 용기 잃지 마시고 애써주십시오.

두 번째 안타까운 소식은, 추석날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하신 이경해 농민열사의 충격적인 비보였다.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WTO(세계무역협력기구)협상에서 날로 어려워지는 한국농업의 현실을 위해 농업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협상저지 투쟁을 하시다가 칼로 스스로 찌르고 돌아가셨다. 이경해 회장이 6만여평의 땅에서 목축업도 하고 농민후계자 꿈을 실현한 농부였다고 하니 더 맘이 아프다. 한국 농업현실을 세계만민에 알린 이경해 열사의 죽음은 생각할수록 숙연하면서도 애통하기 그지없다. 열사여! 비록 먼저 가셨지만 이 땅의 농민을 위해 지켜주시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가진 자의 횡포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며칠 후 이 땅에서 장례를 치를 때 장례일정 내내 경찰은 너무 난폭하고 과잉대응으로 일관하여 공권력의 폭력이 난무했다니 그럼 그렇지, 제버릇 개주라 싶어서 입이 쓰며 울분이 치민다. 밤늦은 유해 운구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니 기가 막힌다. 열사여 고이 가소서!

요사이 행사가 참 많다. 어머니들이 여러 군데 바쁘게 참가하고 함께 소리지른다. 바로 “이라크 파병” 문제다.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한총련 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 집회를 열어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이라크의 ‘파병불가’를 외치고 외쳤다. 연일 국회 앞에서 모여 농성·식발등으로 결사반대를 했건만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 운운하면서 기어이 우리 여망을 짓밟고 공병 등을 파견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세계를 숙이고 이라크의 석유를 탐내어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최신무기를 동원해 이라크에 폭탄을 퍼부었다. 그리고 부시는 이것이라고 손을 들고 의기양양, 전승선언을 하였건만 이라크 전후(戰後)의 뒷감당을 못하자 또다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전투병으로 보내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우리를 자기네 속국쯤 알고 있는 이 자들의 소행은 뻔뻔하고 오만하고 유아독존격이

다. 뭣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사지에 보낸단 말인가? 부시는 제나라 군인을 보강하든지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여 버리든지 하라. 절대로 이 나라 군인들을 맹우, 혈맹이니 하는 허울로 여전히 전쟁인 이라크로 보내서는 안된다. 이라크 민중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한 길에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된다. 아니, 전쟁의 참상과 고통을 겪은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이라크 파병 반대한다. 노대통령은 국민여론을 핑계삼지 말고 결단하여 미국에게 “노우” 라고 말해야 진정한 국익을 얻을 것이다. 실익이 없는 파병 결정으로 인해 주권국가로서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대통령은 우매한 지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전쟁을 좋아하는 정치가, 지도자는 꼭 망하여 물거품같이 사라진다는 것은 유구한 역사변천의 진리이다.

해방이후 이 땅의 젊은이들, 양심세력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한테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고 두동간 난 강토 때문에 이념·사상의 색깔물리로 희생되고 피 흘려왔다. 민주주의·자주독립·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애국인사는 감옥으로, 형장의 이슬로 죽임을 당하여 왔으나 그 정의로운 맥은 끊이지 않았고 어려운 고비, 힘든 시기를 면면히 지탱해 왔다. 군부독재의 탄압을 피해 37년간 독일에서 생활하던 송두울 교수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고국에 왔건만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신나서 매일 조사한다고 불러들이고 있다. 모두 아시다시피 악랄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전신인 국정원은 이번만큼은 밀실조사가 아닌 꽤 공개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니 희생자가족인 민가협 어머니들은 부디 공정한 조사가 되기를 바란다. “송두울 교수님 힘내세요. 우리자식들도 그 지독한 고문과 폭언으로 사건이 날조되어 끝없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알게 모르게 죽임을 당했어도 이렇게 끝까지 당당하게 싸움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남산 안기부, 서빙고 보안사 등지에서 음산한 비명과 살인적인 수사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핏발선 그 자들의 잔인한 인권파괴 행위를 우리 엄마들은 절대 잊지 맙시다. 민가협 어머니들의 소원은 수십 만평이나 되는 넓은 국정원을 폐쇄하고, 남산 안기부에서 역시 시민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념터로 남기어 국민들로 하여금 인권의식의 중요성을 새겨서 이런 곳을 만든 권력자의 흉악한 속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로 되었으면 한다. 검찰은 송두울 교수를 빨리 자유롭게 하고 빨갱이 탐색 수사를 그만둬라. 늙으신 어머님과 큰소리로 웃고 소중한 자식들과 조국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많은 민주인사 애국인사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

민가협 어머님들은 치열하게 안기부와 대공분실의 비리수사를 만천하에 알리며 양심수 석방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18년간 투쟁했다. 어머니들의 힘이

그토록 강하고 끈질기까지 하리라고는 고문수사관들은 몰랐지! 어머니의 보라색 머리수건과 투쟁은 이땅의 양심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비록 나이 먹어 자유롭지 못한 이 한 몸, 이 땅 어디든 누구든 인권침해로 괴로워한다면 어머니들은 뛰어가서 눈물을 닦아주리라!
어머니들 수고하십니다.

37) 9월을 맞으며
2003년 9월 48호

늘 비가 잦았던 여름도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새벽에는 이불이 그리울만큼 다른 계절이 성큼 다가온 것을 실감한다.
아침 한겨레신문(9월3일치)에는 나와 인연이 있는 기사가 가슴을 친다. 사회면에는 낙성대 만남의 집 선생님들의 사진이 나왔고, 사실에는 장기수 2차 송환의 타당성을 역설하는 글이 가슴뭉클하게 한다. 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분단을 상황에서 긴 세월 본인의 뜻과 달리 오랜 감옥생활을 보내고 마침내 석방되어 나와도 80세가 넘도록 또 하나의 조국과 가족, 고향을 그리며 몇개 성상(星霜)을 애타게 보냈을까. 그중 김영식 선생님은 비교적 건강하신 어른이시며 명절 때마다 손수 튀긴 쌀콩강정을 만들어 민가협에 보내주시고 맛있는 빨간사과를 상자로 여러 번 선물하셨다. 시골 과수원에서 일하시고 공임으로 가져오신 것을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한테 주셨던 것이다. 연대투쟁 현장에도 몸 사리지 않고 부지런히 나오시며 아직 결기가 많아서 젊은이들과 같이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분이시다.
2차 송환이 꼭 이뤄지도록 이 정부가 노력하기 바란다. 이분들은 옆방에서 혹독한 고문과 폭력으로 동지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강제전향으로 본인도 모르는 전향장기수로 분류됐다. 얼마전 유엔인권이사회가 '사상전향제도는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확인했다. 인간말살의 포악하기 짝이 없는 법이라는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반인륜적인 전향공작으로 장기수들이 옥중에서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정희 정권의 비정한 탄압은 지금 생각해도 지옥의 아수라장 같은 몹서리치게 하는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산물이 아닌가.
노무현 정권은 꼭 2차 송환을 단행하여 지금이라도 여생을 가족과 더불어 고향땅에서 보내시게 해야한다. 이분들은 고령인데다가 젊었을 때 당한 고문과 폭력으로 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다. 지난

2000년 송환된 63명 중 이미 네 분이 돌아가셨다. 빠를수록 좋으니 30명 장기수 선생님들의 소원이 이뤄지도록 바라마지 않는다.

글을 쓰고 있는데 임선순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연세대인데 한총련 수배자들이 검찰에 출두하는데 함께 가신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정치권력자들은 엄청나게 대학생들을 기피하고 탄압하고 적대시해왔다. 왜 이럴까. 아마 썩은 어른들 눈에는 바른 말하고 옳은 행동하는 젊은이가 무서운가보다. 눈, 귀, 입까지 막으려한다. 가지가지 탄압이 속출하면서 옥박지르고 움매어 왔다. 한총련 이적규정이 1997년 김영삼 대통령 때 등장하여 이때까지 이나라 애국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해 왔다. 그러나 거기에 굴할 우리 아들딸이 아니다. 한총련 이적규정은 전가보도처럼 정권 대물림으로 굴비 역듯 감옥으로 수배조치로 이어왔다. 노벨평화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이 나라의 대들보인 대학생들과 대화 한번 없이 임기마치고 참여정부라는 노무현정부도 별로 잘하는 것도 없이 양심수 숫자만 애꿎게 늘고 있는 현실이다. 요사이의 한술 더 떠서 노동자 쟁의파업이 오래가면 법과 원칙이란 명목 아래 지도부 때려잡기, 마녀사냥식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인권개선 실종, 경제개혁 실종 정치개혁 실종으로 국회 금넷지들은 민생의 현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구헌날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현실이 가슴아프고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생존권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저질의 정치는 정치가 아닌 치졸한 게임질로서 국민을 달래려면 뜻하지 않은 곳에 불만의 핑크가 일어나게 돼 있다.

민가협은 양심수가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유를 빼앗고 그 사람의 인격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시한다. 제일먼저 7년의 수배생활을 마감으로 하고 검찰로 출두한 유영업(목포대)이 갇혀있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소원한다. 추석 전에, 약속대로 모두 석방하라. 사실은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자식이지만 공포한대로 빨리 내나라! 우리 자식들은 아무 죄도 없다. 있다면 나라를 사랑하고 바른 말하고 행동한 죄밖에는 없으니 말이다. 오늘 출두한 학생을 곧 집으로 보내주고 검찰은 범법자 운운 말고 깨끗한 우리 자식들을 자유롭게 하여 대학생생활 하도록 보장하라. 대검도 이제는 목에 힘을 빼고 그만 거들먹거리고 내 자식동생 대하듯 이적규정을 벗겨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슬픈 얘기를 하고 끝맺을까 한다.
김승훈 신부님. 늘 근엄하면서 잔잔한 웃음으로 대하시는 신부님이 정말 우리 곁을 떠나신 겁니까? 어이하여 아직 할일 많은 이 사회를 버리고 가셨단 말입니까? 1987년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종철이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장례를 치렀을 때 울고 또 울었다. 당시 1500명의 양심수가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었다. 신부님은 짐승만도 못한 공안수사관의 만행을, 5명의 수사관이 종철이를 죽인 사실을 성당에서 미사드릴 때 용감하게 알리고 만천하에 알렸다. 어머니들은 경악과 분노 속에서 힘을 얻어 2월7일, 3월3일 국민적 대집회를 이뤄내고, '전두환 정권 타도'를 외치며 매일 거리에서 넘어지고 끌려다니며 외치고 외쳤다. 6월 한열이 죽음으로 이르러서는 수많은 학생들과 민중들이 뭉쳐 최루탄이 자욱한 거리거리에 용감하게 매일 외치고 다녔다. 신부님의 용기는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고 귀했다. 그후 우리는 신부님을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몇 년 전 폐암 수술을 받으셨다 하여 방문하여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어이 돌아가셨다니 너무도 안타깝고 슬프다. 20여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신부님! 부디 천당에 가서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살려주시고 돈으로 나쁜 짓 하고 백성들의 행복을 짓밟는 자를 벌하여 주소서. 장례미사에 참석 못하는 필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현재 저는 환자입니다. 꼭 일어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히 가십시오. 어머니들 활동 고맙습니다.

38) 복(伏) 날 쓰는 편지
2003년 8월 47호

민가협 어머니들과 민가협을 아껴주시는 여러 인사들께 삼가 인사드립니다. 지루한 장마는 끝났다고 하나 계속 비가 자주 오는 이 때, 연세 높으신 선생님과 어머니들께서는 얼마나 삭신이 쭈시고 힘이 드시겠습니까? 저도 금년 여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십여년 전부터 앓아온 퇴행성 관절염이 도져서 점점 걷기가 고통스러운데 더해, 늘 운전하여서 나의 이동을 도와주던 남편이 얼마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아 어머니들과 현장을 찾아다니는 일이 어려움에 서게 됐습니다. 나의 18년 활동에 큰 한계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남편 간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머니들과도 함께 못하니, 씩씩하고 군소리 없이 굶은 일마다하지 않고 다니는 조순덕 회장 이하 모든 동지들이 더욱 우려러 보입니다. 편하고 약게 살 수 있는 인생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어머니들은 고생스럽고 생색 안나는 이 길을 오랫동안 견고 있을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딱한 사람을 돕고 힘이 되어주시는 민가협 어머니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군부독재시절부터 우리 자식들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갖은 고문과 탄압으로 옥살이도 하고 보장된 앞날의 기득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 정권시절 양심수는 1600여명이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식은 용공좌경 빨갱이요!"라고 수사관들의 협박에 속았지만, 곧 자식의 진실을 알고 믿고 하나둘씩 구치소로 모여 죄없는 자식의 석방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항거하며 교도소 앞과 재판장에서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의 눈물과 탄식은 과감한 투쟁으로 바뀌고, '니 자식·내 자식 구별없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곳이 있으면 불원천리 달려가서 힘모아 싸웠습니다. 당시 우리 학생들을 야비하게 색깔몰이하여 이득을 얻는 우리들이 준비하게 많지만 94년도 박홍(서강대 총장) 신부는 극에 달하여 스스로 죽는 이 나라 젊은 열사들을 가르켜 '어둠의 세력이 차례로 죽이고 있다', '대학생들을 북의 김정일이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해외로까지 다니면서 헛소리를 언급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언론 방송매체들까지 함께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 100여명의 양심수들이 생겼다가, 대부분이 근거 없어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는 건재하여 대학 교정 안에서 온존하다고 하니 많은 젊은이들의 땀과 피가 아깝습니다. 한나라당의 색깔 논쟁도 요사이도 국회고 당사(堂舍)이고 간에 아직도 구시대적 행태를 못버리고 있다니 죽어야 고친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에 겪은 일들, 온갖 신산노고들은 책을 엮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치지 않는 갖가지 인권침해에 어머니들은 그 현장에 달려갑니다. 늘 숨쉬는 공기처럼, 그 인권침해의 현장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남용의 경찰청 항의방문, 거리집회 등 부당한 체포를 규탄하는 집회는 물론이고 인권유린 사건이 생긴 교도소 방문투쟁은 물론 이 한 몸, 남김없이 부서져라 싸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8.15 광복절 사면은 꼭 양심수가 다 나와야 되며 정치수배된 학생·노동자들도 다 자유로와 져야 합니다. 양심수 이석기씨는 물론이요 이번에는 꼭 석방되고 기결·미결 구별없이 석방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민주당 인권위·청와대·법무부에 돌아다니면서 양심수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하였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옥살이를 하는 많은 양심수도 함께 내어놓으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지금 양심수 숫자는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면서 갑절이 불어나서 80명을 웃도는 현실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이 땅의 양심수로서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온갖 비리와 무서운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을 바로 잡고서 바른 소리 옳은 생각을 표시한

일밖에 없습니다. 세도가들이 생색내듯이 양심수 석방을 쥐락펴락 할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욱 노력하여 사회불안 요소가 무엇인지 그 해결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도자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내일(8월 4일) 필자는 병원에 가서 입원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무리하게 뛰어 다닌 덕택에 관절(척추까지) 손상이 심해서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
민가협 회원으로서 양심수를 위하여 뺏골이 닳도록까지 뛰었다고 여기면 그것도 큰 영광이요, 생의 보람으로 여겨집니다. 나를 아는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를 몸에 새기고 수술에 임하겠습니다. 한동안 어머니들과 떨어져야 됩니까?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일 하는 어머니 단체로서 칭찬도 받고 통일되는 날에는 덩실덩실 춤추며 지난날의 노고를 회상하도록 애쓰시다.
인권운동은 우리 민가협 어머니의 몫이다. 투쟁!

39) 함께하는 연대투쟁, 인권실현 만세!
2003년 7월 46호

요사이 지루한 장마철이 계속된다. 간밤에도 전국에 비가 왔고 벌써 산사태가 났다고 뉴스가 말한다. 죄없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양심수들과 정치수배로 경찰들을 피해 사는 한총련 학생들과 그 외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스럽다.
4월 30일 양심수 사면조치가 이뤄졌다. 우리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외쳤지만, 노무현 대통령 취임행사로써는 너무도 인색하게 치러진, 13명의 양심수 사면 석방조치에 불과했다. 다행히 석방되고서도 오랫동안 공민권을 회복하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 사면복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그후 이래저래 또다시 잡아 가두는 바람에 민가협이 조사하는 양심수 통계숫자는 원래대로 다시 채워지고 말았다. 4년만에 나온 양심수 하영옥씨는 이석기 동지의 석방과 모든 양심수 석방을 위해 청와대에 주변 도보순례단과 함께 2달째 1500Km 넘게 행진하고 있다. 애쓴 보람인지 얼마전에 대전교도소에서 일주일간 귀휴를 얻어 늙으신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나고 안타까운 배웅 속에 제 발로 교도소로 가버렸다. 민가협 어머니들도 같이 갔다. "왜 아주 석방하지, 이런 잔재주를 피우고 있나?" 울분이

북받친다. 큰 생색내듯 한 사람의 몸뚱이를 저희 맘대로 조절할까? 석기씨와 헤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으며, 석기씨 어머니의 건강을 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땅의 양심수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간헐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어제 아침과 낮에 두가지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오후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공청회 얘기부터 하겠다. 제목은 <구금시설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이다. 시작하기 전 직원들이 계구사용 모델을 보여줬다. 직접 보니 참석한 어머니들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내 자식과 남편들이 지난날의 모습이 떠오르고, 많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짓이 성행하고 있다니 분통이 치밀어 오른다. 9년이 넘게 고생한 서 의원 부인은 순천교도소에서 당한 석달간의 금치를 떠올리고 눈에 잔뜩 노기를 띄운다. 앞에 앉아 뭔가 제 잘났다고 장황하게 떠벌리는 법무부 관계자의 너스레가 확 싫증이 난다. 법무부 교정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행정처에서 상 탔다고 자랑하니 더 기가 막힌다.
대강 이런 뜻으로 말한다. "6만여명의 수용자의 기본질서를 잡으려면 계구사용이 불가피하며 무기사용을 자제하려면 할 수 없고, 국가예산부족으로 개선이 불가하니 이해하라"고 한다. 질문과 자유발언시간에 필자가 일어나 교정교화가 직업인 교도관의 정신자세를 개탄하고 그 야비한 권력의 오남용을 규탄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어떤 교도관은 "목욕시간에 수갑을 풀었더니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 그 답을 달라"고 이야기 한다. 이상희 변호사는 무책임한 발언이라 질타하고 배석한 출소자가 "옥상 문이 열렸었느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우물쭈물 꼬리를 내린다.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는 없고 당연히 "내 할일 다했다"는 이런 자세들 때문에 고문과 강제 계구사용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공청회가 다 끝나고 영 마음이 마뜩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오랫동안 무시무시한 계구를 몸에 붙이고 신음하는 수감자들의 모습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는 성심성의껏 충실한 교도관도 있었으니 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수용자에게 사람답게 양심과 사랑을 간직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
오랫동안 많은 교도관들과 싸우기도 하고 양심수들을 지키고자 애쓴 민가협은 늘 갇힌 자들의 안위와 수배자들의 고통을 예의주시한다.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닳을 올려라

또한가지, 느티나무 카페에서 아침 10시 기자회견 역시 뜻이 깊다. 인권단체들의

“네이스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장에는 42단체 대표들과 민가협 어머니들이 빠지지 않고 함께했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농성할 때 처음 알았고, 최근 정부의 갈짓자 행태에서 전교조 탄압국면으로 가는 연가투쟁으로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로 사법처리 사태까지 이르른 것을 보고 어머니들도 좌시할 수 없어 인권활동가의 명동들머리 단식투쟁(10일간), 전교조 지도부 농성투쟁(7일간)에 이어 위정자의 횡포를 역으로 뒤집어 씌우기 식의 갈팡질팡 행정에 네이스 강행을 좌시할 수 없어서 이에 대응하는 인권대책위를 만든 것이다.

결의문 일부를 적어보면 “위로는 대통령 국무총리로부터 아래로는 학교교장에 이르기까지 법도 상식도 무시한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권한의 주도층들에게, 인권의 기본가치도 모르는 보수수구세력에게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네이스를 당장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법과 기구를 만들고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네이스를 중단하고 개인정보영역 삭제 사태의 네이스 인권침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닳은 올랐다!

노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다수의 힘을 믿고 불법으로 밀어붙이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여러번 엄포를 내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문제야기의 원인과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치고 성의있는 해결과 노력은 없이, 경찰의 공권력이나 행사하고 약한 자의 신병과 재산 수탈 등 파멸시킬 궁리나 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라 할 수 있느냐. 요새 큼직한 노동쟁의 역시 슬기로운 조치는 보이지 않고 처벌과 탄압 위주의 옛날 독재정권의 색바랜 수법과 큰 차이가 없어서 우려된다.

슬픔을 쪼개고 서로 함께 하자

어제 법무부가 준법서약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니 반갑다. 그러나 아직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이 많이 있으니 이어서 고쳐주길 바란다. 1998년 광복절 사면석방때 별로 효과를 못보고 이미 죽은 법으로 몇몇 악랄한 수사관과 교도소에서 악의적으로 써먹던 준법서약서를 공식적으로 없앤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지만 공안사범 가석방 조건으로 서약맹세를 요구한 이런 법은 마땅히 없어져야한다. 수구정당 한나라당이 반대하지만 더 나아가 한총련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악법들을 다 없애야 한다. 나쁜 법은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큰 죄악을 씨앗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갇혀있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억울한 수배자들의 해제를 요구하며 여름 무더위에 고생하는 많은 양심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땅 어딘가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아 민가협

회원들은 슬픔을 쪼개고 서로 함께 하자고 마음 다진다.
함께 하는 연대투쟁 인권실현 만세! 감사합니다.

40) 6월 단상

2003년 6월 45호

6월이 시작되었다. 1987년 6월은 왜 그리 일도 많았는지. 민주화운동의 기억은 16년이 지나도 쓰린 것은 쓰리고 아픈 것은 또 아프다. 그리고 생생하다. 그해 초, 1월 14일 서울대 박종철 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사관의 잔인한 물고문으로 원통하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온 국민이 분노로 들끓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의시위, 집회가 연달아 일어났다. 추운 겨울과 따듯한 봄날을 최루탄 속에서 지새우며 지냈다. 거리거리 전경들의 곤봉과 사과탄을 피해 이 골목 저 골목으로 헤메이기도 했다. 페퍼포그(다연발탄)가 터지면 학생들이 그 검은 탄을 발로 밟아 끄려고도 했으나 역부족이어서 이내 매캐하고 매운 연기에 숨조차 가눌 수 없었다. 학교 앞도 연일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전경, 학생과 뒤섞여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었다.

그해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가 교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쏜 최루탄을 머리에 정면으로 맞고 쓰러졌다.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실려갔으나 이미 늦어서 모두 안타까움 속에 한 달도 지탱하지 못한채 그만 운명하고 말았다. 그에 분노한 명동성당 앞마당에는 대학생들, 시민들이 가득 모여 들었고 "6.10항쟁"이 시작되었다. 군사독재에 항의하는 전 국민들의 힘에 굴복한 전두환, 노태우가 내놓은 6.29선언은 그들의 항복선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숙임수"라고들 했다. 우리 어머니 동지들은 숙지말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다음날, 2백여명의 학부모들이 인사동에 있는 민정당사에 몰려가, 당시 감옥에 있는 양심수 1천5백명을 전원 다 내놓으라고 아주 크게 싸우고 많이 통곡하기도 했다. 며칠 뒤에 노태우 대표를 극적으로 만나기도 하여 악을 쓰며 양심수를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민정당사에서 무자비한 전경들에게 끌려나올 때 어머니들은 실신 부상하여 경찰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던 기억들이 모두 새롭다.

그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 좋은 세상이 오리라 믿고 또 믿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어디 나 뿐이었으랴. 그때는 그런 믿음, 희망이 점점 독해지는 최루탄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게 했던 것 같다. 그해 6월에는 매일 거리로 나와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를 외쳤다. 기억도 새롭구나. 살아있는 그때의

학생들은 마흔 줄이고, 많은 열사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는 홀연히 가버렸다. "민주 영령들이여 감사합니다. 그대들의 깨끗한 넋이 있었기에 지금 이 정도나마 민주주의가 보존되어 있지요."

지금도 해마다 6월이 오면 그해 생각을 하곤 한다. 올해는 연세대에서, 한열이가 최루탄을 맞았던 그 장소에서 한총련 수배자 학생들이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 김영삼 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이적행위로 몰고, 김대중 정권이 끝나도록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풀리지 않았고, 그 과정은 노무현 정부로 이어졌다. 이번에야말로 이적단체 규정을 꼭 풀어야 될 것이고 7, 8년씩이나 수배생활을 한 유영업, 최원석 등 170여 수배자를 꼭 자유롭게 해야한다. 그저께 끝난 11기 한총련 출범식은 여전히 힘차고 젊은이들의 함성과 모습이 믿음직스러웠다. 11기부터는 이적단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요사이 내 주변에서 가슴아픈 일이 일어났다. 청송감호소에서 '금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외치며 5월23일부터 6백여명씩이나 단식을 했다. 외따로 산 속 깊숙이 갇혀있는 이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대책위(민가협, 민변, 천주교인권위, 사랑방등)를 꾸려 이래저래 활동했으나 해당 주무처 공무원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단식농성 6일째에 이른 6월5일 아침 민가협 엄마들이 법무부로 쫓아가니 저들도 급했는지 보호국 검사가 만나겠다고 나섰다. 새파란 젊은 검사는 단식 숫자가 600명이 아니고 497명이라고 줄이느라 급급했다. 그리고나서 법무부 왈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자기 본래 형기보다 더 긴 훨씬 긴 세월을 첩첩산중 오지에서 징역살이하는 악법을 없애달라고 수 백 명이 목숨을 내놓고 굶고 있는데 법무부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 감호소를 대도시로 이전할 계획이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겠다, 사회접촉 기회를 늘리겠다는 등등이라니 굶는 이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안이다. 이들은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큰 도적들이라기 보다는 돈 20만원 훔쳤다고 징역 20년을 살아야 하는 사회적으로 힘없고 뺨없고 돈없는 장발장들이다. 장발장 이야기가 소설 속에나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수많은 장발장들을 조장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보호감호제도는 이런저런 절도나 기타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기를 다 마친 사람들에게 막연한 '재범의 위험성'을 들어 청송감호소에서 7년 이내 징역을 다시 살리는 악랄한 제도이고 명백한 금징역(이중처벌)이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재범 위험성이 나타난다면 교도소에서 교정교화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교화프로그램을 다시 살펴야 이치가 맞지, 다시 또 징역을 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작 필요한 것들은 손하나 까딱않은 채 무조건 징역만 두 번 세 번 살리면서 사회에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격리하고 고통을 주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라고 하는 악명높은 인권유린을 저지른 것을 무마하려고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보호감호제도는 독일 나찌때 제정된 법을 참고로 했다고 한다. 나찌시대 법을 본뜬 보호감호제도 때문에 청송 1,2감호소에서 1500여명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보호감호제는 땀질 개정이 아닌 하루빨리 없어야한다. 범법자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살 권리를 인정하는 법 정신이 아쉽다. 민가협으로 찾아와 호소하는 출소한 이들. 그러나 아직 우리 힘이 약해서 보람이 없는 듯해서 미안할 따름이다.

강금실 장관에 대한 기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희망. 요사이 영 믿음직하지 않다. 우리는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필요하며 정치수배를 당하고 있는 아들, 딸을 둔 부모님들의 쓰라린 심정을 알아주는 대통령을, 정치인을 원한다. (수구파 정치인들이 어찌 알겠느냐. '뒷조사' 전문인 김문수 의원이여! 한때 우리와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요? 당신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제 텔레비전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미선이 효순이의 1주기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 1년동안 많이 싸워온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거만하고 강고한 미국 바윗덩어리에 그래도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저항하고 외쳐왔단다.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금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불평등한 소파도 개정하고 억울한 죽음도 밝혀내라고 싸우고 또 싸웠단다.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6.25전쟁을 경험한 우리 세대는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우리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41) 4월은 잔인한가
2003년 5월 44호

늙은 민가협 엄마는 뜻대 없는 쪽배처럼 공허하고
요사이 마음이 울적하다.

앞뜰의 목련은 그 많던 하얀 꽃잎을 다 떨구었다. 이제 여린 새 잎사귀가 '나 이

만큼 자랐어요!'하고 인사를 하는대도 나는 반갑지 않다. 그뿐이라. 길거리 곳곳에서 형형색색으로 꽃들이 뿜내듯 피고지고 있건만 심드렁하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대자연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다고 하지만 늙은 민가협 엄마는 뜻대 없는 쪽배처럼 공허하고 슬프다.

한 대학 학보사 기자가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생각을 말하러한다. '패권지상주의 미국의 침략전쟁을 규탄하며 이라크 민중의 생명을 그자들과 같이 짓밟아서 이 땅의 국익을 얻고자하는 파병결정을 단연코 반대하며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말했으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 귀가 어디에 있으며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파병을 곧 앞당겨서 실행한다고 하니 패전국의 위험천만한 무질서 난리통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귀한 아들들을 사지에 못 보내서 안달인지, 위정자들의 경망스런 사고방식이 이제는 분노를 넘어 한심스럽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 귀는 어디 있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미국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니 혈맹인 대한민국이 도와줘야 한다고 부추겨냈다. 내 몸의 안전이 제일이며 나의 가족의 무사안일이 우선인데 주권국가로의 자존심이 어디 쓸데 있으며 굴종이든 포복 노예근성이 무슨 문제라,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지면 그만 아니겠는가? '호랑이 코털 건드려서 이익 될 게 없다'는 뻔뻔스런 궤변으로 세상을 유혹시킨다.

과연 그럴까.

이라크 침략 다음에는 한반도 차례라고 세계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끝간데 모르고 으시대는 부시 일당이 과연 북핵 문제에 얼마만큼의 합리성을 보일지, 가공스러운 신무기로 신나게 즐기는 살인놀음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선심 쓰듯) 성경책 옆에 끼고 독수리 병아리 삼키듯 한반도를 침략할 야욕과 집착을 떨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지금도 우리 국민 알기를 하찮게 알고 있는데 가당키나 한 소리겠는가. 미군 궤도차에 살해된 미선이 효순이 죽음에서 잘 알 수 있다. 살인자를 자국으로 도피시키고 국민의 자발적 주권의식 발로인 촛불 행진을 반미운동으로 몰아 배은망덕한 맹방으로 몰락하지 않았는가.

평화는 꼭 오리라

50여년간 분단된 조국을 한시바삐 통일하고 한민족으로 같이 오고가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며 남의 나라 국민을 침략하는 행위가 이번의 파병결정이기 때문에, 이라크의 참상에 강건너 불구경이 아닌 매일같이 염려되는 것이다. 노약자 어린이들을 우선 앞장서서 구제하는 일이 진정한 국익이 아닌가. 마취제

와 의약품이 없어서 생으로 수술하고 있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유엔의 거액 구호품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니 무슨 소용이 있으며 위급한 환자를 살려내지 못하는 의약품과 의사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남북어린이어깨동무가 이라크어린이 돕기에 나서고 18차 민가협 정기총회 때 회원들이 모금하여 갖다주니 에미들의 마음이 다소 흐뭇했다. 벌써 꽤 모였다고 하니, 검은 눈동자에 고통스런 어린이들이 우는 모습에서 환하게 웃는 건강을 찾은 모습으로 되기를 기원한다.

이 나라 독재정권이 기승을 떨던 80년대 4월과 그전의 4.19때부터 이 땅의 청년 학생들은 아낌없이 이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뿐인 목숨을 초개같이 던지고 부정과 비리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싸우고 죽어갔다. 우리나라가 왜 약소국가인가? 아니다. 옳게 깨어서 단합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올바른 민족정기를 가슴에 새겨 한반도를 지키자는 결심만 하면 감히 누가 덤비랴. 평화는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정녕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면 평화는 꼭 오리라.

아픈 허리야, 다리야 좀 참아다오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양심수들과 정치수배자들이 다 집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돌아오기 소원한다. 금년 4월에 있을 대통령 특별사면에는 선별이 없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많은 정치수배자들이 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대전교도소에 있는 하영옥 양심수도 나오고 암으로 고생하는 그 부인도 빨리 낫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고난의 지난날을 웃음으로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85세 이석기 어머니도 이레동안이나 법무부 앞에서 아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꼭 석방되기 바랍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지금 위중한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래 더욱 간절히 함께 석방을 소원합니다."

내일이 대전교도소에 있을 양심수석방 집회에 민가협 어머니들이 많이 참석하기로 했다. 4월12일 4시에는 시청앞에서 반전평화반대 특별집회가 있다.

모두 함께 가자. 아픈 허리야, 다리야 좀 참아다오.

우리는 수 없는 절망을 딛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투쟁의 장으로 갈 것이다.

42) 정의가 끝내 이기는 세상을 소망한다

2002년 11월 41호

일기예보가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한다. 올해는 겨울이 더 빨리 닥쳐왔다.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노천농성하시는 유가협 아버지 어머니들이 적이 걱정이 된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차례가 오면 잠시잠깐 함께 하다 돌아가지만 한데서 늘상 버티고 계시는 의문사가족들의 고통은 말해 댈하랴. 지난 2000년 10월 문을 연 대통령직속 기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진정접수된 의문사 85건을 조사했으나 34건만 종결처리 했다. 시간적 제약에다 충분한 조사 권한이 없어 과거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권력기관, 수사기관들 특히나 안기부, 군 보안사 등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현행 의문사법 상 규명위는 9월 16일자로 문을 닫게 되었다. 그래서 의문사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의문사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하라는 것이었다. 재작년 422일간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하였던 유가협 어른들의 끈질긴 독심은, 이번에도 경찰이 잡아가면 또 다시 모이기를 수차례 하였고, 플래카드, 피켓을 뺏아가도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또 모이는 것이리라. 나만 70지난 노령이 아니라 17년간 같이 싸웠던 이분들 역시 다 연세가 들어 예순 일흔 넘어선 지 오래다.

11월 7일 아침. 시림 손을 부비며 여의도 유가협 농성장으로 갔다.

요사이 한나라당 앞은 여러 갈래의 사람들로 북적댄다.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3대 노동악법(주5일근무제, 경제특구 특별법, 공무원 조합법) 저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11월 5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하고 국회 앞에 모여들었다. 우선 건물 주위를 경찰의 삼엄한 경비 즉, 전경들이 까맣게 에워싸고 그 앞에 노동자들의 규탄집회(전날 영등포 경찰이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3백 명가량 잡아갔다고 한다), 한나라당에 드나드는 많은 정치 줄서기 패들 까지 각양각색이다.

버스 정거장까지 있어서 팔각지붕아래 벤치는 빈자리가 아쉬울 만큼 문전성시다.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찾고자 하는 유가족들을 만났다. 반가워하면서도 점심 문안도 잊지 않는다. 허원근 아버지(허영춘), 정경식 어머니(김을선)는 뺨이 추위에 붉게 얼어서 부송부송하나 우리를 반긴다. 순간 가슴이 짜아하니 아린다. 콧등은 먹먹해지고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왜 이분들이 이제껏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가슴 답답함이 뒷덜미를 뺏뺏하게 한다. 군부독재정권 장본인들 전두환 노태우는 호위호식하고 예우받고 있는데,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귀한 내 자식들의 진실된 죽음의 이유, 또한 명예회복을 위해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갖은 고생을 하며 투쟁으로 외쳐왔다. 그분들이 안 간데가 어딘가. 의문

사진상규명위원회는 권한강화 및 무기한 기간 연장으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희생자들의 진상을 캐내어야 한다. 애타는 가족들의 진정을 다 들어주고 진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한때 민가협과 유가협이 같이 싸웠던 나날을 떠올린다. 의문사 규명이 뵈에 부딪힌 부모님들이 눈앞에 짝악 보인다. 연안가스 노동자 신호수 아버지, 서울대 우종원 어머니, 서울대 1학년 김성수 부모님, 최우혁 아버지, 대우중공업 노조활동하다 번사체로 된 정경식 어머니, 한진노조위원장 박창수 부모님, 권총 세발로 자살했다는 허원근 아버지 까지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쉬지 않고 중단없이 한 길로 싸워오신 이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진다.

“민가협 어머니들이여. 내 아들 딸 들은 억울하게 감옥가고, 놈들에게 고문받아 환자되고, 죄인되고 핍박받았지만, 때 되면 짝도 만났고 일터도 생겼고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지요.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거쳐 이제는 사회인 구실을 하니 유가협 어른들께 늘 죄송하고 미안한 감을 가집니다. 먼저 간 열사 및 희생자들의 기록하나 억울한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리 후세에 알려야 합니다.”

잠옷입고 나간 새내기 성수 학생은 군복 입은 채로 콘크리트를 2개나 매단채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이번 강릉 수해로 몇 겹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성수 자료 유실을 더 안타까워했다. 84학번 우혁이는 군부대 쓰레기 소각장에서 꽃꽂이 서서 타 죽었다고 하니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아들의 군입대 권유를 너무 가슴아파 하다 스스로 한강에 투신했고, 우종원이는 철도길에 내버려진 번사체로, 신호수 열사는 고향 동굴 앞 가시덤불에 가려져서 죽어있었다니 어찌 부모님이 원통절통 안할 수 있겠는가. 카츄사 입대한 김근영이도 침대다리에 목매 자살하였다 하니 그 사실을 누가 믿겠는가. 정경식 노조원은 뒷산에 어린 나무에서 자살했다 하고 그 유골을 어머니는 오랫동안 집에 두고 오로지 진상규명 투쟁을 했다. 이내창 학생 죽음도 안기부 소행이라는 확신은 심증은 가나 확정이 안되었다.

군부독재 정권의 만행은 끝이 없이 이어졌다. 지금껏 살아서 땡땡거리며 잘 살고 있고, 실세 장세동은 대통령 출마한다. 허원근 아버님은 더욱 속이 탈 것이다. 의문사진상위원회가 사건을 발표했는데도 얼마있다 군이 구구하게 변명하여 없는 사실로 만드는 '쇼'까지 연출하니 하늘이 무섭지 않는지, 악인들이 벌받지 않고 잘 사는 세상은 용서할 수 없으며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우리는 소망한다. 독재자 박정희 시절, 대법원이 '사형'으로 확정판결한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사법살인 당한 인혁당 8사람의 열사들도 수십년이 지나서 이제야 "수사관들의 고문으로 인해 조작된 사건"이었다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알려주었다. 예정남열사의 부

인 신동숙 여사는 내 고향 여학교 선배님이시다. 긴 세월 인내와 각고로 기어이 진상을 규명해냈다. 독재자들의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음모조작하여 애국자들을 억울하게 죽이는 처사야말로 아무리 시간이 흐르다해도 용납할 수 없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산 자들이 뜻을 모아 악인들을 응징하고 진상을 낱알이 세상에 알려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임기 다할 때까지 이런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가해자를 세상에 알리고, 제일 야당 한나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국회에서 유가족들의 소원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겨울철에 노천농성을 한 유가족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버지 어머니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함께 못했던 것을 사과드리고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덧붙임

유가족들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천 농성을 벌인지 36일째 되던 11월 14일,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은, 기각 결정난 사건 가운데 진정한 명백히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사위 위원 전원 합의가 있는 사건과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 최대 1년동안 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을 뿐, 그동안 유가족 및 사회단체들이 줄곧 주장해 온 특별검사 임명, 압수수색권 및 계좌추적권, 위증죄 처벌 등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외면했다. 다만, 검찰의 승인아래 관련기관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유가족들은 노천농성을 끝냈다.

43) 경찰은 사대매국행위 그만두고 공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

2002년 10월 40호

밤늦게 박성희 간사의 전화를 받았다. '미군의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재판권 이양'을 촉구하며 대학생 10명이 미대사관 담을 넘었다. 항의의 표시로 성조기를 태우려다가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붙잡혀 종로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런데 잡혀가는 도중에 많이 맞아 다친 학생도 있다고 한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하루종일 집회, 행사에 참여하느라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몸이 녹초가 되어 꼼짝도 할 수 없다. 아쉽지만 내일 아침 일찍 종로경찰서에 모이기로 하고 종로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당신들이 어느 나라 경찰이나? 아까운 우리 자식을 죽인 미군은 제대로 조사도 못하면서 정당한

주장을 하는 학생들을 왜 잡아 가두는 거냐? 당장 풀어놓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시대의 역적이거나 마찬가지다!"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갈 테니,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 손끝 하나 건드리면 알아서해라"라고 단단히 호통을 치고 나니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

아침밥을 뜨는 등 마는 등 부랴부랴 집을 나섰는데, 출근길 정체가 채 풀리지 않아 차가 꼼짝하질 않는다.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경비가 삼엄하다. 입구에서 '어떻게 왔느냐'고 묻는데 그냥 무시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니 벌써 어머니들이 모여있다.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잡아 가둔 경찰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다. '어젯밤 뉴스에 학생들이 끌려가면서 두들겨 맞는 거 봤어요?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 어느 텐데...' '살인범을 제대로 조사하고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하자는 건데, 재판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미군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자국민은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냐구요?' '정부에서 눈치보느라 찍소리 못하는 걸 국민이 나서서 주장을 하면 고맙다고 해야지, 입을 틀어막기에 급급하니 도대체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미대사관 건물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테러를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 난리법석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면회를 신청하려고 면회실로 가려는데, 울통불통 인상이 험악한 자가 "면회 안돼, 조사중이라 절대 안돼" 고함을 치니 담당자가 "우리 과장님이 못하게 하니..." 우물쭈물한다. 어머니들은 일제히 수사과장을 에워싸고 "면회를 못한다니 말도 안 된다"며 항의한다. 경찰서마다 수사과장이 있으나 다 분위기가 다르다. 잔뜩 어깨와 목에 힘을 주고 여간 으르렁 딱딱거리지 않는다. 민가협 엄마의 실력을 모르는 자가 분명하다. 수사과장을 따라붙다 보니 수사계에 짧은 머리 학생이 수감차고 있는 모습에 눈에 띈다.

'무슨 중죄인이라 수갑을 채웠냐, 당장 풀어라.' '우리는 이런 걸 조사하러 왔다. 너희들이 애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협박하는 걸 감시하러 왔단 말이다.' '애들은 당신들이 못하는 일을 대신 했다. 정의감 넘치는 행동으로 담을 넘은 것 밖에 없다. 조사는 무슨 조사냐! 다 아는 사실인데 무엇을 부풀려서 조작하려고 그러냐!'고 항의했더니, '할머니 나가세요. 시끄러워요.'라며 떠밀어낸다. 우리 어머니들은 분노하고 늘 호통친다. 공권력 남용으로 거칠게 끌려온 학생들의 현재 건강상황, 경찰의 인권침해 등을 꼭 알아야되기 때문이다.

수사과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많은 전경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그새 현관을 잠그고 우리를 내쫓고는 옆문도 굳게 잠근다. 이방 저방에서 직원들이 나와 악쓰는 꼴이란, 정말 알찼다. 저런 자들이 여차하면 고문날조하고 신분상승의 기

회로 삼아 억울한 죄인을 만들 것이다.

쫓겨 나온 우리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식당으로 가는 척하면서 지하열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때서야 할 수 없다는 듯 수사계장이 우리에게 다가와 약속빠른 의견을 내놓는다. 학생 2명을 데리고 올 테니 보고 가라는 것이다. 수사계에서 두 학생을 만나 끌어안으며 반기니 맘이 몽글했다.

우리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가냘픈 모습의 여학생은 두 다리에 상처투성이다. 가슴이 아리고 쓰리다. "그래그래 장하다. 수고했다. 다친 데는 없냐." 어머니들 모두가 학생들의 안부를 소상히 묻고 용기 있는 기상을 칭찬하니 학생들도 빙그레 웃는다. 성조기가 바람에 날려 끝내 태우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미래의 조국을 짊어질 대들보들이여, 애국하는 길목에 잠시 자유를 감금당하는 위험까지 마다 않고 그 자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었구나.'

우리는 '학생들을 모두 다 보기 전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농성 아닌 농성을 벌였고, 잠시 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어 붙잡혀 온 학생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바쁘게 움직여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학생들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하고, 손을 잡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때 조 회장이 급히 다른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아, 이게 웬일인가.' 서울대에서 열리는 민가협 장터 때마나 자원활동을 했던 봉사꾼 재용이가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재용이는 빨리 나와서 이번 장터 때 꼭 참여하겠다고 한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오니 하루해가 다 가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으로 종로경찰서 서장이 경질되었다고 한다. 경비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서. 그때서야 종로경찰서 직원들이 그토록 혼비백산이 되어 우리를 경계했던 까닭이 이해가 되었다. 2000년 6월에 미대사관에 들어간 6명의 학생들이 불구속처리 된 데 비해 이번에는 6명 구속, 4명 불구속이라는 중한 벌을 내리고 서장까지 바꾸는 경찰수뇌부들의 조치가 가관이다.

지하철에서 미군일병이 서경원(65세) 전 의원을 폭행했다. 폭행한 미군은 병원에 누워있는 서 전 의원을 찾아와 사과를 했단다. 그러나 미군헌병과 대사관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성명서를 내고 뉴욕타임즈는 본질을 왜곡하는 기사를 써서 진실을 가리려 한다.

이습이야기에 바람이 세면 참나무는 꺾어지고 약한 갈대는 휘어진다는 말이 있다. 강하다고 약소국가를 자기 수중에 넣으려는 것은 안 된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미국과 부시는 언젠가 꼭 천벌을 받을 것이다.

위정자들이 무력하여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하라고 땅에 엎드려 아첨하니 소

파개정은 언제 실현되고 이 나라의 자주통일은 언제 될 것인가.

그러나 젊은이들의 목숨 건 정의로운 투쟁이 있는 한 조국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미국은 미선이 효순이를 죽인 살인자에 대한 재판권을 이양하라!

경찰, 검찰은 사대매국 행위를 그만두고 공정한 국민경찰로 거듭나라!

구속한 학생들을 모두 석방하라!

44) 2001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 8 15에 생각한다

2001년 8월 27호

금년 장마 역시 많은 피해가 속출했다. 하천범람, 역류로 다시 대자연 속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하잘 것 없는지 확인시켜주기라도 하는 듯.

8.15 광복절을 앞두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고 염원하는 행사와 해당관청의 방문이 이어진다.

8년째 이어져온 목요일집회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집회로 기획되었다. 7월 19일 386회는 박경순, 나창순 등 앓고 있는 양심수의 빠른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그리고 387회 목요일집회는 양심수의 자녀들이 나와서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 읽기와 아들, 딸에게 보내는 양심수 아버지, 어머니의 끈끈한 사랑을 담은 글이 발표되어 어린 자식들도 목메어 울고, 뒤에 서 있는 보랏빛 수건을 쓴 민가협 어머니들도 다 눈물을 흘렸다. 이번 8.15에는 꼭 만나자는 염원이 배어 있었다. 아빠가 공부하러 갔다고 믿고 있는 어린 자식, 어렵פות이 알고 있는 딸, 나라 위해 일하다 갇혀 있다고 믿는 아들. 모두가 서로 간절히 바라는 이 만남을 그 누가 갈라놓고 있던 말인가?

8월2일, 388회 집회는 법무부 앞 감옥시위. 여당에서 양심수 사면을 건의하였는데 법무부의 사면 불필요 건의에 따라 청와대가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가족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여 법무부가 있는 과천청사 앞에 모여, 옥문을 상징하는 문짝 30여개를 부여잡고 목청껏 구호를 외쳤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법무부장관 각성하라' 34도가 넘는 염천 하에서 처절한 구호가 하늘을 찌른다. 무사안일과 무능한 사고방식으로 국민의 소망을 짓밟는 법무부의 이런 행태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을 속박하고, 자유를 빼앗고, 인위적으로 고통을 주는 현실이 분노스럽다. 법의 권위는 정당하게 행사할 때 수긍이 되고 이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군사독재시절 날마다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재판장과 길거리를 물려다녔다. 그리고 죄 없는 아들딸과 남편, 형제자매들의 석방을 위해 목이 쉬도록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며, 독재정권의 만행을 규탄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온몸으로 싸웠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자유를 속박 당한 이들의 해방과 인권이 실현되는 그날을 위한 우리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몇번의 사면조치가 있어 양심수들이 석방되기도 했지만, 다시 투옥되기도 하면서 집권 3년 반이 넘었다. 그동안 양심수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악법 국가보안법은 없어질 듯 하다가도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공안수사관들은 이에 기생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수구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존치론을 고수하며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 여당의 미지근하고 무능한 추진력이다. 이런저런 눈치보느라 제자리에 맴도는 민생현안들은, 끝없이 헐뜯는 정쟁으로 햇빛도 못 본 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게다가 여당, 청와대, 정부 기관의 손발이 맞지 않는 정치 행태는 국민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민주당에서 사면을 건의했는데, 청와대는 "법무부의 건의에 따라 올해 광복절 특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직도 179명의 양심수가 이 삼복더위에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또 수배자는 얼마나 많은가? 이들이 죄가 있다면 조국을 사랑하고, 겨레의 아픔을 위해 양심을 버리지 않고 소신껏 행동한 죄밖에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구조조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고락을 함께 한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이유 있는 항거를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진압하였고, 그리하여 감옥에 갇힌 노동자 양심수가 금년 들어 부쩍 늘었다.

이런 피해가족들과 함께 8.15 사면을 위해 민가협은 동분서주하였으나 관계당국의 무관심과 안일한 사고방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 눈에 비친 정치인들의 모습은 오로지 당리당락을 위한 지겨운 싸움질과 눈치보기에만 급급할 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아픔과 소망을 아랑곳하지 않는 한심스러운 정치군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굳이 말하자면 소신 있는 국회의원도 한 술에 나물밥이라고 밖에 보지 않는다.

다시한번 우리가 깨달은 것은 민주 세력들이 힘을 모아 열심히 투쟁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 광복절까지 날짜가 있으니 김대중 대통령을 위시하여 법무부까지 대오 각성하여, 하루빨리 양심수를 전원석방하고, 비이성적인 이적규정으로 고통 당하는 범민련인사, 한총련 대의원들의 수배조치를 해제하여 주기 바

란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정치를 펼 때만이 국민이 따르고 믿을 수 있으며, 역사에 올바른 획을 그어 후세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여러 회원들의 힘찬 투쟁을 바라며, 마음을 놓지 말고 고통받는 이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열심히 투쟁합시다.

3. 기타 글 모음

1) <추도글> 이 글을 삼가 김대중 전대통령 영전에 드립니다.
2009년 9월 88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병세가 위독하여, 우리 민가협 엄마들은 연세병원 예배실에서 쾌유소원의 예배를 드리며 병환을 물리치고 일어나시기를 정성껏 빌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서거하셨다고 들었을 때는, 태산이 무너지는 아픔에 장차 이 나라 처지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25년전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힌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내 자식을 이해하고 역성들어주는 인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협회장인 김대중 선생님은 수호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용공좌경에 빨갱이 운동권으로 체포되어 공안기관에서 혹독한 고문과 매질로서 날조된 조서를 꾸미고, 검찰역시 그대로 공소장을 만들어 재판에 회부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은 실형을 받고 옥살이 하는 양심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1600명이 되는 양심수는 구치소 교도소마다 넘쳐나고 자식들 고통에 찬 비명소리는 어머니들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밖에 있는 가족들은 자식이 잘못될까봐 목숨바쳐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농성투쟁으로 지낼 때, 각계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필사적으로 석방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선생님의 장한 자식을 두었다는 말 한마디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 졸이던 어머니들의 마음을 당당하게 활짝 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남의 일 같이 여기지 않고 힘써 주셨습니다.

80년도 민주화운동에 선봉에 서서 우리를 이끄신 김전 대통령은 민가협 초기 그 저 평범한 어머니로 살림을 살다 나온 엄마들이 차차 깨우쳐 단결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가협 역사는 김 전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의 정성이 아우러진 파란 만장의 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고비 끝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당신의 사형을 집행하려던 전·노 군부대통령을 조속히 사면하였고 나아가 98년부터

는 장기수 분들을 속속 석방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국사범이다, 남파간첩이다 하여 세상과 단절 시킨 비전향 장기수로, 긴 세월의 구석에서 석방을 이루었으니 국민을 놀라게하고 우리 민가협 엄마들을 크게 고무 시켰습니다. 2000년도 9월에는 북녘에 2차 송환이 있었고, 한 달 반 지나서 평양에 가게 된 저는, 건강한 장기수 선생님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석방 이후 송환 된 장기수 선생님들을 평양에서 다시 만나니 남북의 평화로운 협력의 시대가 곧 열리는 듯 했습니다. 악법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외치는 엄마들로서는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

서거 하시기전 용산참사를 아파하고, 민주화 역행을 걱정하고 질타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한반도 우리겨레를 지켜주십시오. 세계에 자랑스러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겨레를 살피주시고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살기를 지켜두십시오.

많은 국민이 추모하고 애통해 하지만, 민가협을 사랑해주신 크나큰 공은, 만고에 빛나고, 만인이 흠모하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서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2) 임태훈 투쟁! 2004년 6월 56호

민가협 엄마로써 뛰어다니던지 19년동안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알았고 그 중에도 애국학생과 청년들을 많이 접했다. 감옥에 양심수로 갇히면 석방하라고 외쳤고 아깝게 세상을 뜨면 눈이 벌거토록 울고 탄식하였다. 재판을 보러 가면 격려하였고 교도소구치소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청년들 편을 들어 교도관들과 법무부 상대로 투쟁하였다. 많은 세월이 흘러 그 모질던 감옥도 변하여서 몽당연필하나 못 지니게 하던 양심수도 펜과 종이를 가지고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게 행형법이 더러 개정이 되었고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덜 오래낸 신문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안팎으로 싸운 양심수와 민가협 엄마의 힘도 보태졌으리라고 여긴다.

활동을 해 오면서 최근 몇 년에는 새로운 양심수들을 알게 되었다. 한해에도 무려 5-600여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이유로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하

여 옥에 갇히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양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 오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해 온 우리 자식들의 양심과 그들의 양심을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 중에 우리가 평상시에 활동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임태훈이 있다.

작년 7월 22일 임태훈이라는 인권활동가가 양심에 따른 병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후 구속이 확정되어 옥에 갇혀있다. 현재 1심에서 1년 6월의 형을 받고 항소중이다. 임태훈 활동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동성애인권단체의 회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딱한 곳에는 남 먼저 뛰어다니고 함께 투쟁하는 열성스러운 투사였다. 임태훈 활동가는 경찰서 구치소에서부터 입을 다물고 식사를 거부하는 단식을 하였다. 무려 28일간이라고 기억한다. 우리는 두 번 면회 갔었는데 태연하게 밝은 표정으로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고 연발하는 나에게 되려 위로하였었다. 차가운 감방에서 그가 주장하는 신조는 동양 철학도으로써, 성현들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라와 겨레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소원하며 억압과 폭력이 없는 서로 사랑하는 믿음에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실천하고자 하는 활동가 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 맞으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맞붙어 싸우지는 말자라는 다짐을 했으며 태권도 운동할 때도 서로 겨루는 게 싫어서 피하였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싸움만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몇 년전 TV에 나와 토론할 때 어찌나 진술하게 의견을 피력하는지 나도 모르게 깊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그가 쓴 병역거부 소견서 중 일부를 소개한다.

"나는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과 공부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원 입학하기 전, 군대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정의와 함께 이들도 양심수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국내 사람이 아닌 AFSC(미국친우봉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카린으로 부터였습니다.....(중략).... 이를 계기로 한국 역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소위 비정상 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를 시민 불복종적 의미에서도 거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권활동가로서 타인을 죽이는 연습이나 이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굳이 세계인권선언문과 국제인권법, 헌법에 조문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는 진리이자, 보편타당한 명제일 것입니다."

임태훈 양심수여 파이팅! 그대의 투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힘을 주고 샘물같이 솟아나 용기로 되어서 수백 명의 구속자도 힘을 얻기 바란다. 그래서 빨리 석방되어 자기 자리로 돌아와 소수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정의로운 분노가 참다운 평화를 쟁취하여서 성공하기를 빈다.

양심수 임태훈이는 정당합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이 늘 임태훈을 사랑합니다.

3) <추모사> 그리운 정순덕 선생님 영전에 드립니다.

2004년 4월 54호

선생님이 인천의 중환자실에서 열이레만에 세상 뜨셨다고 방송국 아침뉴스에서 알았을 때 기어이 닦쳐온 현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제 4월 1일, 탑골공원 목요집회 끝나고 어머니들과 선생님 병 문안 의논한지 채 하루도 못되어 부고를 받았으니 원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5년간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후 기어이 돌아가셨다니 그렇게 갈망하던 통일의 한을 어떻게 간직하고 가셨는지 애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래 전 처음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은 소박하게 서글서글 활달하였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집안 일을 해나가시고 이미 한쪽다리는 잃으셔도 밝은 모습의 앞뜰 채소 가꾸기, 화초 심기뿐만 아니라 장 담구고 강아지 키우며 비전향선생님 들의 보금자리 가꾸기에 열중하셨습니다. 얻어먹은 싱싱한 상추는 참 맛있었습니다. 서울대 대동제 민가협 장터에도 함께 하며 고락을 나누었고 도토리묵을 쑤어 기증하였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서 다시 쓰러져 5년간 투병하다가 시니 선생님 생전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난 연말 후원회 송년회때 당뇨병을 앓는 나에게 고기 먹지 말라고 충고한다든지, 비싼 약탕기를 사주며 또 하나는 북녘땅에 갈 때 가지고 가려고 비축했다고 할 때라든지 선생님 칠순생일날 수술 받고 누워있는 나를 되려 격려하던 일이 감동으로 추억됩니다. 선생님이 지나거나 북녘 땅으로 가고파하던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작년 인권콘서트에도 휠체어 타고 오시고 큰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선생님, 이제는 편안히 가소서. 말 안 듣는 팔도 자유롭게, 불편한 보행도 가볍게 훨훨 날아서 우리를 살피주소서!

지금 이 땅은 시골벽적 합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하여 기어이 아무 상관없는 전쟁터 이라크에 이 나라 젊은이들을 파견하려는 정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

는데 국회의원 193명은 기어이 대통령 탄핵 결행을 하고서는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외치며 촛불 시위하는 국민을 억누르고 책임자 붙잡는다고 야단이니 단순 무식한 검·경들의 소행이 알립습니다. 전교조 위원장님이 민주노동당 지지한다고 체포했다고 하니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또 수난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분통이 터집니다.

통일열사 정순덕 선생님. 아직도 이 나라 어느 곳에서 억울한 눈물 흘리고 있는 민중을 보듬어 주시고 내일의 희망에 열심히 살아가는 민초를 지켜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불의와 악을 미워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민족민주세력을 지켜 주시고 겨레가 하나되고 남북이 통일되는 세상을 이루도록 지켜주십시오. 선생님 부디 고이 가십시오.

2004년 4월 3일 임기란

4) 수배자의 비극

2003년 3월 43호

1970년대쯤인가, 텔레비전에서 “도망자”라는 연속드라마를 했다.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쓴 주인공이 끈질긴 경찰의 추격속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누명쓴 자에게 복수를 하고 파란많은 인생을 드디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 감동적인 영화였다. 그 주인공 배우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프랑스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 미제라블>도 주인공 장발장을 평생 미행하여 못살게 굴던 자벨 경관이 장발장의 인도적인 행동에 감명받은 자벨은 자신이 품어온 정의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세느강에 투신자살한다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어릴 적 읽은 책이 70이 넘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이게 뭐 정신빠진 헛소리인가? 연극의 허구 속에, 책 속의 가상인물들의 천태만상 드라마틱하고 낭만적인 줄거리가 강건너 불구경쯤 되는, 그런 얘기를 필자가 종일종일 주어담고 있던 말인가요? 천만에 아닙니다. 실지 상황은 더 심각하고 우리 자식 아들딸들의 아픈 현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도 나의 대뇌작용은 망발이 아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나를 헛갈리게 하는 지끈거리는 아픔과 가슴 쓰리게 하는 분노가 요사이 일련의 필름으로 머리에 뱅뱅 돈다.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시절도 감히 써먹지 못했던 학생운동 탄압의 표본,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는 규정이 탄생한지도 언 6년째이다.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집권 4년째인 96년 봄부터 학생운동을 뿌리뽑고 용공좌경 빨갱이들을 죄소탕하겠다는 공언을, 종교가들을 모아놓은 조찬기도회 때 언명했다. 집권 동안의 여러 실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나쁜 집념으로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여 연세대 8.15 통일행사를 쑥밭으로 만들고, 전쟁을 방불케 하듯 전경이 교내에 진압하여, 집에 돌아가려는 학생들을 연세대학교 종합관과 과학관으로 밀어넣고 가둬버렸다. 1주일간 김영삼(대통령) 김광일(비서실장) 박일룡(경찰청장)이 트리오를 이룬 권력자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은 침소봉대하여 불온학생 세력이 연세대에 집결하여 항거중이라고 왜곡 보도하였다. 또한 헬리콥터 6대는 며칠동안 번갈아 건물 옥상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 교대로 커다란 비닐자루에 최루가스를 넣어서 공격 투하였다. 세브란스 병원은 높는데 있어서 그런 광경이 잘 보였고, 그래서 그곳에 모인 학부모들은 "아이고 우리자식들 죽는다"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절규하며 울부짖었다. 그 매운 공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절망했다. 경찰은 8월 21일 새벽, 소위 진압한답시고 이루 말 못할 비참한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채은아 간사와 같이 새벽에 뛰어갔을 때는 이미 학생들을 다 잡아서 신고 가고 마지막 호송차 한 대만 남아있었다. 전날 45만원을 건어서 구입한 휴지와 위생대 따위의 물건들이 과학관 앞에서 굴러다니고... 과연 이곳이 학원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때 나는 차에 탄 학생에게 다가가 소리질렀다. "장하다! 너희들이 옳은 거야. 절대 겁에 질리지 마!"(시간이 흐른 뒤 어떤 청년이 나에게 와서 "어머니 그때 그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호송차 안에 있었던 학생이었다!) 당시 5천 2백명이 넘게 연행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아 김광일 비서실장은 "영도다리 밑에 빠져 죽자"고 발언하여 정치일선에서 도태 당하고, 박일룡 경찰청장은 부패된 돈을 먹고 감옥에 갔다. 김영삼 대통령은 모두 아시다시피 아이엠에프 만들고 한동안 그의 집 앞은 학생들이 격렬하게 시위하여 잡혀가는 장소로 바꿨다.

이듬해 97년 5기 한총련 출범식때 프락치로 의심되는 젊은이가 죽었다. 그 와중에 한총련은 친북세력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탄압받게 되었다. 더욱 놀랄 일은 그 다음 정권인 김대중 대통령이 바톤을 이어받아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선거하여 선출한 각 대학의 총학생회를 와해시키고자, 한총련 대의원이란 명목으로 모조리 수배조치를 하여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이 성황을 이뤘다. 공안 수사관들의 입맛을 다시게 한 한총련 이적규정은 6년이 지났다. 그 사이 수많은 학생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갔고, 지금도 갇혀있고, 그리

고 182명이 수배로 쫓기고 있는 처지이다. 한참 활동하고 순수한 애국심과 정의감으로 원기왕성 해야 될 청년학생들을 움아매고 좀먹게 하는 이 악법은 악랄하기가 진짜 인간 본성을 망가뜨려 놓고, 비정하기가 형용할 수 없다.

수배조치되면 본인도 불행하지만 부모형제가 있는 가정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먼저 속타는 부모님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도 안되고 불운의 꼬리를 이어간다. 예로 들면 은재형 아버지는 녀달만에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충남대 전양배 학생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 절대 안된다는 귀휴를 민가협이 서둘러 성사시키기도 했다. 한총련 6기 의장, 영남대학생 손준혁이도 생전에 아버지 얼굴도 못보고 상을 당해서야 겨우 장례식에 올 수 있었으니 이런 불행이 어디 있는가. 수배자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산으로 들로 숨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 오늘 아침 신문에 충남대 김세룡 학생이 아버지 상을 당하고도 숨어서 잠깐 다녀가고는 장례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 이게 웬 천륜을 어기는 소리인가. 이들이 무슨 대역죄를 지었는가. 우리 아들딸들은 분단된 조국을 걱정하고 반세기가 넘는 민족과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여 내 양심을 지킨 죄밖에 없지 않다. 2000년 홍익대학생 장진숙은 남동생의 임종을 지키려고 갔다가 공안수사관에게 비정하게 잡혀갔고 암말기인 남동생은 누나를 못 보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다. 그날 학생들과 민가협 엄마들은 분노하여 경찰서 2곳과 서부법원 안과 밖을 에워싸고 인간같지 않는 그자들의 행동을 맹렬히 규탄했다. 부산대 2002년 총학생회장 윤용조 학생은 단과대 학생회장 시절부터 수년간 수배생활에 심신이 망가져 지금 병원에 입원치료하고 있다. 심근염이란 병으로. 이것이 다 왜 생긴 병인가? 겨우 불구속 처리한다고 생색을 내는 검찰에 쓴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실 전에 5년 수배 윤기진 전 한총련의장은 21일간 단식했다. 단식 13일째에 방문한 민가협 어머니들이 단식을 만류했더니 심장도 쇠약하고 혈압도 낮다는 윤기진 학생은 웃기만 했다. 그러고도 1주일을 더 단식했다고 한다. 연세대 총학생회실 한쪽 구석에서 세배하겠다고 우리 어머니들을 초청했고, 그곳에 "정치수배해제 사무실"을 개소한다고 고사를 지내는 모습이, 이 늙은 인권활동가의 눈에서 펄펄 눈물을 쏟아지도록 했다.

너무 힘이 없구나. 용기를 내라 여러분들.

판검사도 자식 키우는 인간들이라면 무조건 법의 잣대로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둘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죄없는 학생들을 학교와 가정과 직장으로 보낼 궁리나 했으면 좋겠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고도의 문화가 발전하고 옛보다는 많이 편리해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 휘두르는 맛에 눈먼

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이만큼이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독재가 비판을 받는 시대를 이루게 한 공로자는 누구이던가. 큰소리 치는 정치가도 아니고, 해박한 지식인도 아니고, 옳은 일을 향해 몸 아끼지 않고 바른 말하는 청년학도들의 역사창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수배당하여 쫓기고 있는 25명의 노동자들의 고통은 기가 막힌다. 노동운동했다 해서 해고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거리 저거리에 쫓겨다니고 몸을 숨겨야 한다. 노동쟁의의 손배소 처리는 부자들이 전가보도처럼 악마의 미소를 띄우고 가정 하나하나에 고통을 주고 말았다.

나는 감히 외친다. 정치수배 해제하고 학교와 직장으로 우리 자식들을 돌려보내라.

새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억울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우리 민초들의 고통을 잘 살피고 눈물을 씻어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해야한다. 서로 믿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원하는 보람된 세상이 올 때까지 각자 맡은 일에 정직하게 일하자.

5) 나는 소망한다

2003년 1월 42호

다사다난했던 2002년 12월31일 밤 광화문 세종로 들머리에서 보인 미선이 효순이를 추모행렬은 종로 종각에 제야의 타종을 듣고 새해를 맞이했다. 또다시 시작되는 일상속에서도 모두 경건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주통일을 염원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 다짐했을 것이다. 한반도에 감도는 먹구름이 가시고 평화의 햇살이 따사롭게 퍼져 자유롭고 활기차고 서로 도와주며 밀어주는 세상을 소원한다.

1월2일이 바로 10년째 이어온 목요집회 454회째 날이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동안 함께 투쟁해온 시민사회단체 어른들을 모시고 새해를 시작했다. 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수배해제 구호는 18년째로 창립할 때와 변함이 없다. 찬기운은 손발과 온몸을 엄습하여 옥고를 치르는 양심수를 더욱 생각나게 하고, 얼어붙은 목소리를 힘주며 구호를 외친다.

집회 끝나고 늘 가는 동굴식당에서 모두 모여 조촐하게 시무식을 겸한 인사를 나누고 조찬을 나누었다. 덕담과 격려사는 짧고 늙음을 떠나서 민가협 어머니들은 좋은 보약이 되어 힘을 북돋워 줬다. 늘 초대만 받고, 우리는 정작 여기 저기 돌아다니느라, 얼렁뚱땅 넘기고 말았던 신년모임을 금년에는 제법 또렷이 치루었

다고 할까.

어머니들은 다시 차를 타고 미대사관 옆 열린공원 입구에서, 1인 시위하는 미선이 효순이 대책위를 방문하여 챙겨온 음식을 전달하고 헤어졌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벌이는 투쟁은 정말 쉽지 않다. 경찰은 12월31일 공원 입구에 억울하게 죽은 두 어린 여학생의 추모영정을 짓밟고 홍근수 목사님을 연행해 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는 전경을 내세워 철통같이 막고 있었다. 이래저래 분노스런 마음에 열심히 싸워야겠다는 동지애만 용솟음친다. 왜들 이럴까? 우리 땅에서 반세기 넘어 주둔한 미군은 그만 자국으로 돌아가라하면 그게 반미란다. 살인해서 죄 없다 재판하여 제나라로 도망시켜주는 미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1백만 촛불 대열을 보고 느낀 것도 없는가? 우리 소원은 살인미군 처벌, 공정한 소파개정, 부시 사과이다.

사실 애국하는 사람들은 꼭 패기있는 젊은이만의 특권은 아니다. 남녀노소 모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며 행동하는 운동대열에 함께 할 수 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여 오늘의 조국을 만든 나이많은 어른들은 못다 한 미결의 과제를 젊은이들이 대를 이어 싸워서 꼭 해결하기를 바란다.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는 잔여기간내에 꼭 양심수 전원석방과 악법 폐지를 실천하라! 어떤 선생은 언젠가 나에게 아직도 이 정권에 뭘 바라느냐고 묻는다. 그렇다. 두 아들을 감옥에 구속한 경험이 있는 부모로서 죄없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양심수와 그 가족의 고통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가동된다. 지난 1997년 김대중씨가 당선되자 어머니들은 이래저래 인수위원회를 수차례(8) 기습(?)하고 점거하여 30, 40년씩 갇혀있는 비전향장기수들, 병을 앓고 있던 신인영 선생 등 양심수 전원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수배해제를 탄원하고 촉구했다.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으나, 수십년 갇혀있던 선생님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북 고향 땅으로 가셨다. 노벨인권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당선자와 힘을 합해 모든 양심수 전원석방의 마지막 힘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권력자들이 강제로 해치고 가두고 억지로 입을 틀어막고 실천하는 양심세력을 억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만큼 사회에서 보장받고 보다는 내일의 설계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일터가 있을 때 행복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온다.

2003년도 이나라 이땅 한겨레가 하나되는 세상을 소원하고 강대국에 휘둘러 빌붙어 사는 꼴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노 당선자는 우선적으로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 석방을 단행해야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힘없고 뺨없는 민중 그들의 눈물을 닦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우리는 원한다. 국가보안법은 없어도 현존하고 있는 법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으니 '대체 입법'이란 용어는 필요없다. 유세기간 내내 말한 대체입법은 불필요한 다른 악법이니까 말이다. 이미 세계에서 비웃음을 산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없애야한다. 이번 대선때 한나라당의 후보는 국가보안법을 찬양하고 북쪽을 적국으로 규정하여 때에 따라서는 원조를 중단하고 실전으로 처부수자고 호언장담했다. 그들이 57만표 차이로 패배했으나 이런 위험스러운 호전적이고 반통일적인 국민이 아직도 이 땅에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금년에도 민가협 어머니들은 열심히 함께 투쟁하고 더불어 일하는 회원이 됩시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6)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2001년 12월 31호

2001년 11월 26일, 3년간의 진통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그동안 법무부 등 행정부처의 치열한 방해공작도 물리치고 이왕이면 좋은 법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쁜 권력자는 응징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이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와 그에 걸맞는 법을 만들고자 수많은 활동가들이 고생들을 솔하게 하였다. 두 번에 걸친 단식투쟁, 영하15도의 노천단식투쟁들은 하나뿐인 목숨이 담보였다. 독립된 인권위원회도 법무부 소속의 애매모호한 밥상의 간장종지 쫄의 구색으로 삼으려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인권활동가들은 그렇지 않았다. 후세에도 좋은 기구로써 희망을 주는 법을 만들고자 뜨거운 정열을 쏟아 당국과 싸우며 보다 나은 곳을 향하여 매진하였다.

그러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을 열긴 열었으되 정부 각 부처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식적인 사무처 구성도 하지 못하고, 조사관도 확보하지 못해 인권위원들이 진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조건에서 첫날 진정받은 건수가 100여건에 달했고 아침일찍부터 북적거렸다. 이땅에 이렇듯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을 가진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인권침해로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한시바삐 반듯하고 내용이 찬 인권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높게 발전시키겠다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제시한 약속이었다. 정부 행정당국과 대통령의 성의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세계의 웃음거리가 아닌 자랑거리로 믿음직한 기구가 되기를 원할 뿐이다.

민가협도 16년간 열심히 갇힌 자와 쫓긴 자의 권리를 위해 석방운동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펼쳐왔다. 지금은 군부독재 정권보다 많이 나아졌으나 108명의 양심수가 여전히 옥에 있고, 최대의 반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지 12월 1일로 53년이 된다. 정부 출범초기 보안법을 없애네, 손질하네 정치권에서 말들이 오고갔으나 그야말로 말만 무성한 속빈 강정이었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도 문제지만 또 그 법을 적용하는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도 나아질 줄 모르는 현실이다. 어디 그뿐이라. 이땅에는 소수자라는 이유로 동성애자,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여 있고 교도소 군대 경찰 같은데서도 여전히 인권침해 시비가 일고 있다.

국가기관으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한가닥 희망을 갖게되며 그 희망에 손색없는 활동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 것이다. 있으나 마나 있어도 도움이 안되는 허수아비 인권위원회가 아닌 달려가서 호소할 때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인권위원회를 소원하는 것이다. 성원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발전을 바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사실을 규명하여 엄벌을 주는 정확하고 무게있는 기구로 나아가기 바란다.

7) 목요일 집회 400회를 맞이하여-우리의 소원

2001년 11월 30호

1993년 9월 23일. 서울 한복판, 유서깊은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어머니들이 보랏빛 머리수건을 쓰고 자식과 남편, 양심수 전원석방과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힘차게 외친 지 어느덧 만 8년 4개월로 40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추우나 더우나 목요일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모여서 그때그때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관계당국의 잘못을 규탄하였다. 시의성 짙은 문제제기에 앞장섰고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의 석방을 끈질기게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목요일 집회는 어느덧 억울한 사람들의 사랑방 구실과 위로, 격려의 장으

로 변하여 가족들의 단결과 간힌 자식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알찬 집회로서 자부심까지 생겼다. 어머니들도 목요일 2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석방소식과 경조애사 소식을 나누고, 다음 투쟁의 약속까지 다짐하는 것은 목요일 집회의 정해진 몫이 되었다. 이미 석방된 양심수의 가족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참여하여 양심수의 자유를 위하여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없이 아파하고 분해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참으로 많은 기대속에 드디어 민가협도 문을 닫을 때가 왔구나! 하고 좋아했다. 그러나 한총련과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여전하고 국가보안법은 공안수사관들의 신나는 보물단지로 양심 세력들을 괴롭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점점 살기 힘든 노동자들의 삶의 몸부림과 외침도 다 잡아가두니 역대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 시국 구속자도 줄지 않았고 목요일 집회의 횡수는 늘어만 가고 어머니들의 주름살도 늘어갔다. 오랜 세월동안 친구 회원들간의 연령 차이는 자식들의, 손자들의 석방을 함께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가장 보람 있었고 기뻐던 일은 평생을 감옥속에서 인생황혼에 외로이 지내시는 장기수 선생님들의 석방이다. 그 동안 힘든 투쟁의 좋은 성과라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작년 9월초에 그리던 북녘 고향땅으로 가신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양심수 137명이나 있고 정치수배자들도 수백명이 된다하니 안타깝고 분노스럽기 짝이 없다. 어머니들은 수배자가 되어 차가운 밤거리에서 쫓기는 양심들이, 온기한점 없는 추운 겨울감옥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양심수가 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공장으로, 일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안당국은 억지로 국가보안법을 들썩워 잡아가는 행태를 버리고, 반민주적인 수사기구를 해체하여 검·경 본연의 '국민의 안녕과 희망있는 미래를 돕는 친절하고 명랑한 시민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한다.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인권사각지대가 우후죽순처럼 생기지만 억울하게 체포되고 구속당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서 국민의 눈물을 씻어주고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채 당리당락의 싸움만 하는 정치가들을 국민들은 반드시 외면

한다.

400회로서 집회를 마치는 것이 소원이지만 우리는 단 한사람의 양심수도 없는 날까지 계속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어머니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금강산 민족대토론회에 다녀와서 2001년 7월 26호

지난 6월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을 맞아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금강산을 다녀왔다. 이번 대토론회는 19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이후 최초의 남북민간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였다. 남쪽에서는 통일연대, 종단협의회, 민화협에서 450여명이 대표로 참가했고, 민가협에서는 서경순 운영위원과 함께 대표로 참석했다.

14일 새벽 5시, 경북궁 주차장에 모여 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속초항으로 출발했다. 4시간쯤 지난 후에 속초항에 닿았으나, 6명(노수희 등)에 대한 방북이 불허되는 바람에 예정보다 늦게 출발하였다. 결국 6명을 남겨놓은 채 우리를 태운 설봉호는 금강산을 향해 출발했다.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노인, 스님, 수녀님들과 조선일보 기자,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회원까지 각 곳의 사람들이 왔다. 설봉호는 거센 파도에 맞서 4시간 가량 운항 끝에 북쪽 고성항(장전항) 부두에 닿았고, 2시간 기다린 끝에 겨우 온정리 행사장에 도착했다. 긴 시간 여행으로 온몸은 땀 범벅이 되었고, 2박3일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워낙 걷는 데가 많으니 아픈 다리와 허리가 버텨 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온정리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달리는 버스 속에서 북녘의 산천경계를 감상했다. 그곳은 해안지대라 그런지 그렇게 매말라 보이지는 않았다. 오랜 세월을 겪은 적송들과 멀리 금강산 바위의 웅장함이 동양화처럼 스쳐 지났다.

15일, 금강산에 모인 남북의 대표단들은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역사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토론회는 남북 인사 6명씩, 모두 12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 참석자 모두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연대 협력하자는 소망을 열렬히 주장하였고, 올해를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기억하자고 굳게 결의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북측이 성의를 다해 마련한 음식(평양에서 만들어 싣고 온)으로 금강산 여관에서 오찬을 가졌다. 4시, 평양 모란봉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할 때는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울 공연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다. 저녁엔 계층별(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 학계, 정계) 모임을 가졌고, 일부는 온정리 온천장에서 목욕을 하기도 했다.

밤 12시에 숙소로 돌아와 잠들었다. 내일 마지막날이다. 나중에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재미있게 구경 다닐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16일, 아침 5시30분 일어나서 설봉호에서 아침밥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금강산으로 향했다. 북쪽 사람들과 함께 등산길에 올랐다. 나는 산행을 포기하고 계곡에 앉아 바위와 물을 보며 기다리기로 했다. 3시간 남짓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인민배우 김옥기 씨와 한참 이야기를 했다. 50살이 넘었으나 아직도 아름다웠다. 18살에 데뷔하여 이제는 최고 배우로 대우받게 되었다고 한다. 늙어서도 나라에서 먹여주니 노후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한다. 치열한 경쟁 끝에 정상에 올랐다가도 나이 들면 잊혀지는 남쪽 배우들의 처지와 비교되는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북측 민화협 직원들이 깨끗하게 유니폼을 입고 시원한 물과 김밥(재료는 남쪽에서 가지고 갔음)을 하산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계곡에서 점심 식사를 겸한 환송연을 끝으로 2박3일간의 토론회 일정을 마치고 모두 설봉호에 승선하였다. 4시30분, 아름다운 금강산, 오랜 이웃 같이 친절하고 따뜻한 북녘 사람들을 뒤로하고 설봉호는 장전항을 출발하여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장전항에서 속초항까지 뱃길로 4시간, 부산 가는 길 보다 가까운 이 길을 오는 데 50년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돌아오는 배 안. 선물도 사고 거나하게 취해서 그동안 정들었던 감회를 충분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첫날 범민련 박정숙(85세) 선생님이 과하게 차멀미 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하여 모두들 걱정했던 것 말고, 아무 탈없이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남, 북, 해외 250여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민족대토론회는 전민족적인 화합의 장이었으며,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접촉, 교류,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 참가를 계기로 이적단체규정으로 불법시 해 온 범민련과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토론회 기간 내내 북측의 손색없는 손님맞이와 미리부터 정성껏 준비한 혼

적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남쪽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준비하려다 보니 엉성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남측 추진본부의 결속력과 정치적 실천을 높이는 과정이었다. 앞으로 이런 힘을 모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양심수 석방, 미국의 내정간섭 배제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투쟁을 더 잘해야 하리라. 빠듯한 일정에 급히 갔다왔으나 민족의 통일을 열렬히 여망 하는 데는 모두 일치된 모습이었다.

9) 인권공대위 해산에 부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를 해산하며
2001년 6월 25호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염원해왔던 독립적이고 실효성있는 인권위를 만들어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절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맺음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대위, 그 이름처럼 아직 올바른 인권기구 실현이 안 되었으니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공대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한 번 만들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예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50년 세월이 흘렀지만 못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만들어놓은 법을 고치는 것은 만드는 과정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대위는 올바른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눈치를 보며 민간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허수아비 인권법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대위를 해산하고자 합니다.

정치권과 대통령은 허수아비 인권법을 만들고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오랜 투쟁과 열망의 결실"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인권단체에 대해 "이렇게 만들어도 결국은 따라올 것"이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행동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눈물겨운 해산을 하는 것은 이처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밝히고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공대위 활동은 3년이지만 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해온 것은 10년 세월이 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인권위 설립에 쏟은 것은, 이 땅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 스스로 반성하며 새로운 발상을 하는 국가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직 관료나 친정부세력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시스템을 바꿔보자, 사고를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못 하겠으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솔직하게 시인할 일이지 인권대통령이라는 환상에 젖어 업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호도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인권위 설립을 위해 일하는 동안 놀랍게도 검찰과 법무부가 인권위를 산하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조직적인 반대행위를 일삼는 것을 접하며, 이러한 이유로도 인권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절감했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무관심과 오해, 편견을 접하며 올바른 인권위를 만들어 의식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가 어찌 인권위라는 새로운 발상, 국가의 반성체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험난한 길을 헤쳐가며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사회에서 인권위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절망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우리를 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요구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권피해자를 구제할 권한은 조금도 없는 인권법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대위를 해산하지만 각자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인권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간 성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맡겨진 임무를 다하지 못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함께 해온 동지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25일

10) "인권이 최고가 되는 날"을 꿈꾸며

2001년 제13회 인권콘서트

세월이 바람처럼 지나 어느 틈에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거리의 투사로 변하여 나의 아픔을 딛고 이웃의 고통을 더욱 아파하고 갇힌 자의 자유를 찾아주고자, 쫓기는 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여기 저기 외치고 다닌지 16년이 되었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 짚 수 없지만 양심수를 사랑하고 수배자들에게 따

스한 손길로서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스스로 타이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노동자 구속이 심했고 정부와 정치배들에 대한 실망도 큰 한해였습니다. 요란한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경제는 불안하여, 거리에 나온 농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자비한 공권력의 폭력에 가차없이 짓밟히고, 진압이란 이름아래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인권은 유린 당하고 부천 대우자동차 노조원들 또한 경찰의 마구잡이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학생 양심수가 으뜸이던 민가협 통계도 노동자 구속이 앞서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농민과 노동자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지난해 우리는 '안녕 국가보안법'을 소원했지만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한 해를 더해 53년을 맞이 했을 뿐입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적인 웃음거리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의 자식과 남편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해 왔지요.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약 당하고, 종교적 양심때문에 총들기를 거부한 젊은이들이 갈 곳이 감옥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올해 열세번째를 맞는 공연 "안녕, 113"을 통해 하나의 생각만을 강요당해온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국가안보보다 원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나와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어 보자고 합니다.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은 해마다 느끼지만, 젊은이들이 공들인 노력의 결과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의 노력은 그렇다치더라도 헌신적인 대학생들의 자원활동, 수녀님과 수사님이 포스터를 붙이고 출소한 양심수들이 기꺼이 티켓 팔러 다니고... 추운 거리에서 포스터 붙이다 경찰서에 잡혀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열세번 공연을 하는 동안 얽힌 화제거리도 많지만, 5년전엔 경찰이 공연장을 에워싸고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전태춘씨를 비롯한 출연진과 관객들이 한마음으로 공연장 앞에서 포스터를 높이 들고 말없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공연 15분전 닫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출연자와 관객과 자원봉사자가 한몸이 되어 향기로운 양심의 꽃을 피운 것이지요. 작년엔 장충체육관 마루가 조금 가라앉았다니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길래 그랬을까요?

출연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뜻 있는 가수, 연극인, 배우들이 이땅의 양심수를 위해, 인권을 위해 기꺼이 연주하여 관객들과 함께 하니 점점 열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각자 양심의 빛이 되어 자유와 평화를 소망

하고 악을 미워하며 정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젊은 연출가 김정환씨의 참신한 솜씨를 기대합니다. 초창기 연출하신 문근호 선생의 명복을 기리며,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어 보나 다른 알찬 내용을 담아 희망의 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정열과 희망이 어우러지고 무대와 관객의 호흡이 하나되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의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갇힌 자 모두 석방되고 집으로 돌아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터에서 일하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2001년을 보내며 바쁘신 가운데 열세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권이 최고가 되는 날이 오기를 같이 꿈꾸어 봅시다.

11) 열두번째 공연을 열며 2000년 제12회 인권 콘서트

사람이 사람다움게 사는 것을 배우고 느끼는 값진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창한 맹세와 큰 포부로 맞이한 새천년 새해,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가까워 오면서 문득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획한 일이 잘 성사되었는지, 민가협 15년 나이에 걸맞는 인권지기 역할을 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올해로 열두번째를 맞이한 이 공연도 해마다 열리게 되는 현실의 안타까움과 의무감으로 바빠지는 것입니다.

오는 12월 12일은 민가협 창립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1985년, 자식을 잃거나 감옥으로 보낸 어머니들의 목선 아우성이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에서 흘러넘치고 넘쳐 모여 이룩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건만, 스스로 지혜를 짜내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릴 것 없이 옹공좌경으로 몰려 탄압받는 아들딸을 구하고자 맨몸으로 온몸으로 결사분투하였습니다. 교도소 처우개선을 위해 자식들이 단식을 하고 징벌방에 갇히고 묶이면 바깥에 있

는 어머니들도 같이 굶으며 밤새 교도소 철문을 두드리며 며칠씩 한데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악스러운 경교대에 밀리고 방패에 찍혀 실신하고 머리가 깨져 병원으로 실려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없는 분신, 할복, 의문의 죽음으로 눈물을 삼키며 슬픈 분노의 투쟁을 벌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민가협'이라는 이름은 옥담안 양심수에게 큰 힘이 되고 공안기관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3,40년씩 갇혀있던 장기수 선생님들도 모두 나오셔서 고향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전 조선노동당 창건 55돌을 맞아 남쪽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북녘 땅을 밟았는데, 장기수들을 헤어지니 40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희망으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는 아직도 양심수 90여명이 갇혀 있고 이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여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언했지만 손도 못 대고 올해를 넘길 모양입니다.

한총련,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한창 배워야 할 학생들을 발을 묶어두고, 수 십년간 통일운동한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해매는 아들딸들의 수배를 풀고 온기 없는 감방에서 떨고 있는 양심수를 석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존권을 지키려다 투옥된 노동자, 농민들도 풀려나야 합니다.

이번 공연은 많은 이들의 노고와 땀이 모여 만들어 졌습니다.

이 공연은 관객과 출연자, 뒤에서 고생하는 많은 자원활동가들의 노력의 대가가 어울려 완성되는 값진 인간존중의 외침의 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작품으로 한자리에 모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솜씨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통일과 인권의 향상을 향한 절실한 바람이 덮어주고 감싸면서 입체감을 만드는 뿌듯함이라고 여겨집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언 손을 비비며 포스터 부치기, 곳곳에 티켓 팔기, 멋있고 세밀한 무대장치 등 요소요소의 활동이 다 귀한 일꾼들의 손길과 바쁜 움직임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한마음으로 '양심수 밤'을 사랑하여 개근 출연하는 정태춘, 박은옥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성 강한 젊은 출연자들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사람이 사람다움게 사는 것을 배우고 느끼는 값진 공연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지름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민가협 회원들도 차츰 나이를 먹어 여기저기 몸에 이상이 오고 활동하기가 여전같이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가 발행하면 투쟁의 기를 살려서 현장으로 달려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으로 인해 인권을 지켜나가는

투사, '민가협 엄마'가 된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우리는 양심수가 석방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가협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할 것을 소망합니다.



12) 열한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을 맞이하여

아! 한 세기가 저물어가고 있구나.

하나뿐인 지구에 살고 있는形形色색의 인류는 긴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또 태어나고 榮枯盛衰(영고성쇠)를 되풀이하였던가.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으로 자연환경은 무참히 황폐해가고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기근으로 천진무구한 어린 생명이 굶어 죽어갔으며 인간이 개발한 가공할 전쟁무기는 공멸위기에서 서로 으르렁거린다.

동방예의지국인 이 나라 이 땅은 강대국의 손아귀에 시달리다가 일제 식민지 36년째인 1945년 8월15일 일본 패망으로 해방되었으나 미소 강대국의 욕심으로 분단이란 비극을 초래한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분단전쟁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50여 년간의 남북대립이 이어져 왔다. 역대 위정자들은 입으로만 통일, 통일했지 오히려 민주인사를 짓밟고 자기들 세력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애국학생과 민주인사들은 역대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죽음과 투옥을 마다하지 않고 역사발전엔 큰 몫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수구세력들의 일그러진 선입관은 이 나라 발전엔 걸림돌이 되고 자정,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현실이다.

한해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이 거리에서 청와대 앞길에서 서울역,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그리 큰 사면은 없었지요. 35도 삼복더위 속에서 소나기를 맞으며 외치는 구호는 눈물과 울음바다를 이루었지요. 조계사 수배학생들의 부모님들도 기진맥진 갖은 몸짓을 다하였으나 반응은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63명 패거리의 서명에 많은 어머니들은 발검음을 당으로 몰아 항의 성토했지요. 김현철 사면은 차라리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위정자들을 저주하였습니다. 이근안 재판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문은 한번도 안 했으며 김근태씨에게만 했다. 고문 전기기구는 자기가 개발했으며 약간의 전류가 흘러 찌르르할 뿐 혼내줄 정도이다' 전투경찰에 싸여 호송차에 들어가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뒤통수를 보며 드는 생각은 '분명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람은 아니다' 50여 년 위세부린 국가보안법 덕에 생겨난 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99년 추석 전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천주교사제단의 삭발단식농성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열심히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양심수가 모두 석방되고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맞이하자고.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친 지 14년, 민가협 어머니들은 나이도 들고 몸이 둔하나 어느 해보다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정치꾼들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는 세계 웃음거리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려나 봅니다.

138명의 양심수가 자유를 빼앗기고 가족들의 안타까운 바람 속에 감혀있습니다. 한총련 이적규정의 폐단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배, 구속되고 범민련인사들에 대해 사전 영장을 발부하여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0년째 감혀있는 손성모 씨와 15년 수감 중인 신광수 씨도 하루빨리 석방되어야 하며 출소한 장기수들은 복讎 고향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30년 감옥살이하고 10년째 앓고 있었던 최남규 선생님이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가족상봉도 없이 통일도 못보고 눈을 감은 선생님의 마지막 길에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침통하기만 했습니다.

2년 전, 50년만의 정권교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기대 속에 악법폐지와 제반 인권 현안의 결실을 촉구하고 이루어지길 바랐으나 결과는 실망과 허탈뿐입니다.

우리는 소원합니다.

지난 시대 참담한 인권유린을 청산하고 다가올 새 천년에는 인권후진국의 멍에를 벗고 인권의 시대를 건설하여 희망과 행복이 있는 곳에 살 수 있기를.

매년 겨울이면 열리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올해로 열한번째를 맞습니다.

감혀있는 양심수를 세상에 알리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며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이 공연은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땀흘리고 최선을 다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45년 간혀있던 김선명, 44년 안학섭, 43년 한장호, 41년 우용각 등 장기수들이 기나긴 수인생활을 마감하고 감옥문을 나서게 되었으며 수많은 양심수들이 석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열연하는 배우, 가수들의 연행과 그 자리에 함께하는 관객의 호흡이 어우러져 환호로 화답하고 동지로 의기투합하여 힘있게 하나가 되는 감동의 현장. 이곳에서 나의 양심은 인권문화의 정서로 가득 채워지고 새로이 다짐하는 순간이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불평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추운 거리에서 홍보하러, 포스터 붙이러, 티켓 판매하러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만은 손길이 닿는 곳에 몇 배의 기쁨이 퍼질테니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양심수란 이름이 없어지는 날, 모두가 함께 웃으며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는 날을 위해 추위와 시장함과 피로를 잊고 열심히 뛰는 봉사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공연의 성공여부가 문제아니라 내 소중한 양심이 더 좋은 곳에 도움이 되는 기쁨이 소중할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정의를 노래하고 악을 꾸짖는 정태춘, 박은옥씨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쁜 일정을 쪼개어 출연한 모든 분들과 총 지휘하는 김정환씨의 양양한 앞길의 발전을 위해 덕담을 보내고 싶습니다.

무대와 관객과 봉사자가 한 몸이 될 때 가장 향기로운 양심의 꽃이 피고 인권의 소중함도 함께 할 것입니다.

새 천년을 희망을 일구어 가는 많은 인권지기, 통일일꾼 그리고 공연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지난 시기 혹독한 탄압에도 끊이지 않고 맥을 이어온 우리들의 열정과 투쟁으로 새해에도 굳건히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3) 우리 가는 길 외롭지 않네요

1998년 12월 10주년 기념 공연

어제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0년 된 날이었다. 우리는 국회 앞에서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소불위로 악행을 저질렀던 국가보안법을 관속에 집어넣고 장례를 치르고,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필력이든 만장, 징소리 팽과리 소리 속에서 구성진 만가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는 진짜 코걸이 귀걸이 저 악법을 끝장내야 한다고...

일제시대 독립지사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 되어, 역대 대통령, 위정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곳곳에서 애국하는 국민들을 괴롭혀 왔다.公安 수사관들은 심심하면 민주 인사를 조작과 고문으로 잡아가고, 언론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왜곡보도를 일삼았다. 군사독재를 미워하고, 그들의 실정을 꾸짖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자식과 가족들을 참으로 오랫동안 탄압해 왔다. 옥살이 외에도 정치수배로 오랫동안 여기 저기 피신하는 고통 또한 부모들의 애간장을 녹였다.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울고만 있지 않고 13년 동안을 석방 운동과 악법 철폐를 위해 운동을 해 왔다.

지난해 12월 19일 우리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419묘지에 참배 온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악수하면서 큰 기대를 걸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으니 양심수였던 김대중 당선자는 누구보다도 인권 옹호에 앞장설 것이 아닌가 하고. 450여명이 되는 양심수는 죄다 석방되고 "시와 노래의 밤" 공연도 이제 그만하고, 민가협 간판도 떼어버리고, 기나긴 세월 길거리 여기저기서 고생한 어머니들도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나 일년이 지난 오늘, 웬걸,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살아있고 4백여 양심수는 감옥에 갇혀 여전히 추운 겨울을 나야하고 구속자는 줄줄이 생겨나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여전히 보랏빛 수건을 동여매고 길거리로 나서야 하니...

해마다, 12월이 되면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이루어진다. 양심수의 고통, 가족들의 그리움과 분노들이 얽혀 우리는 열심히 뛰다. 관객 역시 출연자와 한몸이 되어 공연장에 꽂찬 열기가 감동을 연발한다. 늘 이번에는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뒷설거지를 한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10년이 오기까지 함께 한 많은 이들이 있다. 특히 그 공로를 치하하고 싶은 몇 분이 있다.

10년 개근 출연하는 정태춘씨, 박은옥씨 감사합니다.

김중서씨, 이제는 말도 잘하고, 겁도 안 나지요?

문호근 선생님, 금년에도 정환씨랑 같이 일하신다고요? 문익환 목사님이 환히 웃으시면서 칭찬하실 겁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이여, 새로운 힘을 얻어 또 열심히 싸웁시다.

내 자식 우가 감옥에서 꺼내 주나요. 우리가 해야지요.

영터리 '준법 서약서'란걸 만들어 양심수를 괴롭히는 법무장관 각오하라.

우용각 선생님,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이제 우리 마중 갈 겁니다.

21세기 대들보 청년 학생 양심수들이여, 힘내세요. 민가협이 있잖아요. 기운 내세요.

그리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뛰는 도우미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여 금년에도 좋은 공연이 되게 노력합시다.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뜻을 스스로 깨닫는 열번째 공연이 되길...

관객들의 환호가 늙은 어미들을 격려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음에 다시 불끈 주먹을 쥅니다.

4. 현장에서



-2009년 2월 1일 용산 사건의 진상규명과 MB악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가슴 아프다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자기들이 만든 사건이 뭐가 가슴 아프단 말이나, 백배 사죄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2008년 10월 15일 민주수호·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발족식에서

"백만 명의 자발적인 촛불이 켜질 때는 두 번이나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이명박 대통령이 요새는 이 잡듯이, 쥐 잡듯이 촛불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며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 미친 쇠고기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지 좌파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일으킨 촛불이 아니다"

-2008년 10월 15일 민주수호·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발족식에서

"백만 명의 자발적인 촛불이 켜질 때는 두 번이나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이명박 대통령이 요새는 이 잡듯이, 쥐 잡듯이 촛불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 미친 쇠고기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지 좌파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일으킨 촛불이 아니다"

-2008년 8월 12일 비리 재벌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사면을 규탄하고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벌써 사면 복권된다. 이들은 법대로 처리하고, 양심수들을 먼저 석방하라"

-2008년 8월 7일 '경찰 기동대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 기준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동대의 모습은 인간인데 하는 짓은 사냥개다. 5일 연행한 160여명 석방하고 백골부대 해체하라"

-2007년 9월 6일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 기획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온 겨레의 평화통일 염원을 모아내는 이번 회담에서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도에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회담 성공을 위해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성원을 보내자"

-2006년 1월 5일 600회 목요일집회에서

"지난 93년 문민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양심수가 석방되지 않아 시작한 목요일집회가 600회까지 갈 줄은 몰랐다. 이 땅의 양심수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목요일집회는 계속 될 것이다"

-2005년 11월 3일 노충국씨 추모 목요일집회에서

"더 이상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거리에서 눈물을 떨구는 일이 없도록 군대 내 의료접근권이 확장되길 바란다"

-2005년 8월 25일 조작간첩 재심청구를 위해 법원 앞에서

"검찰과 법원이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과거 정권 유지 차원에서 무수히 행해진 도청, 고문, 간첩조작 사건 등의 실체와 규모를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04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촛불문화제에서

"올해 촛불행사가 마지막이지만 기쁘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은 젊다, 정치권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자우리 민가협도 20년 동안 온갖 비판 속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다. 국회가 양심의 소리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할 일을 끝까지 다 하자"

-2003년 12월 10일 500회 목요일집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흑시나 하며 기다려왔는데 결국 참여정부에서까지 목요일집회

를 열게 됐다. 이 땅의 양심수가 사라져 올해로 목요일집회를 끝내고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다"

-2003년 7월 8일 준법서약서가 폐지되자

"어떤 이들은 끝까지 쓰지 않고 외로운 독방에서 수년을 버텼고, 어떤 사람은 겁에 질려 서약서를 쓰고선 죄책감에 우리 어머니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그들을 생각하면 준법서약서 폐지가 속 시원합니다"

-2002년 2월 1일 목요일집회에서

"모든 남자가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획일적 규정으로 인해 개인의 양심이 짓밟히고 있다."

-2001년 11월 1일 400회 목요일집회에서

"처음 집회를 시작할 때 그 누구도 이렇게 오랜 세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와 고발 없이 인권은 있을 수 없기에 인간의 양심이 존중받고 인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집회는 계속될 것이다"

"인권유린과 양심수가 없어져 민가협이 문을 닫고 목요일집회를 중단하는 게 소원입니다"

"비단 양심수 문제뿐 아니라 이주 노동자 문제,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 등을 볼 때 우리의 인권 토양은 무척이나 척박하다. 목요일집회를 그만둬도 될 만큼 좋은 사회가 빨리 오길 바란다"

-2000년 3월 24일 총선연대 유권자 서약운동을 위한 목요일집회에서

"오전에 내린 비가 다행히 그쳤지만, 비가 계속 왔어도 집회와 유권자 서약운동은 강행했을 것이다

오후에 해가 난 것처럼 4.13총선에서도 정치개혁이라는 밝은 해가 떴으면 한다"

참 인권의 등대지기

-임기란-

팔개성상 목요집회는 늙은 어미들 뭍이런가.
영하 18도 추위 속에 얼어붙은 땅바닥에 소리쳐도 옥살이 자식들의 걱정부터 앞선다.

분하고 억울한 어미심정
눈물과 한숨을 삼키고 내아들딸 내자식 석방하라 소리친다.
일흔 다섯의 강위원 어머니 자그마한 여원 몸에서 우렁찬 구호소리
수줍음에 고개 숙인 황혜로 어머니는 외친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 전원석방 하라
하영옥 어머니, 장창준 어머니, 최진수 누이동생, 심재춘 부인도 소리 높여 외친다.
반민주 악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보랏빛 수건 질끈 머리에 메고 추우나 더우나 어미들은 석방을 촉구한다.
두 다리에 힘 넣고 쉼 목소리 가다듬어 구호를 외친다.
죄없이 갇힌 대학생, 농민, 노동자, 민주인사 내 놓으라고

78명의 양심수 오늘도 자유를 잃고 갇힌 몸으로 좁은 감방에서 해방을 갈망한다.
추석도, 설날도 갈 수 없고, 학교에도 일터에도 갈 수 없네
나라 좀먹는 도둑놈들은 석방하고 정의로운 애국자 양심수를 가두는 위정자들이여 각성하라

목요집회 264회를 거듭하면서 많은 희비쌍곡선을 겪었지
45년 옥살이 김선명 선생님이 석방되고 준법 서약 안 쓴 강용주가 나오고
암환자 신인영 선생님이 석방되어 북쪽에 가시면서
아흔 셋 늙은 어머니 두고 떠나는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
우리 민가협 엄마들은 자부한다.

이념과 사상, 정치적 견해의 다름을 뛰어넘어 오로지 사람다운 사람을 염원한다.
늘 정의의 편에서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기쁨이 있다면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거든.
우리 어머니들은 수배, 체포, 고문, 억지 자백, 엉터리 공소장, 터무니없는 구형,
실망스런 판결 모두 배척한다.
양심수란 말이 이 땅에 없어질 때까지 늙은 어미들은 힘껏 싸우려네.
음모 속에 사건을 만들고, 미리 짜여진 심판 따위는 영영 이 지구에서 척결하자.
우리가 목요집회에서 원하는 성과는 바로 이것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인권이 있는 등대지기가 되고 싶단다.

민주가족 2001년 2월 22호

